

# 회영

어떻게 하면  
한 뿔만 남은 영혼의  
기적 소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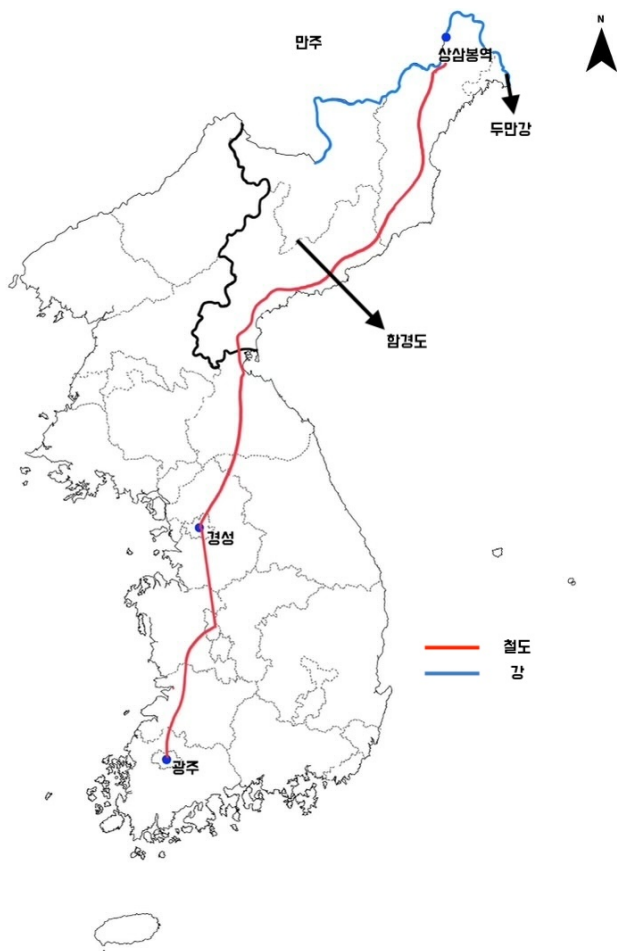
글 | 문재영





휘영(輝煥)

## 1920년대 우리나라 지도(소설 속 주요 장소)



## 작가의 말

학창 시절은 참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고생스럽게 배우면서, 해야 하는 것, 어른들이 시키는 것은 참 많은데 하기는 싫고 이것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안 하자니 불안하고 그렇지요.

이 소설의 주인공도 그렇습니다. 내가 왜 배워야 하는지, 근처에 잘난 사람은 많은데 난 왜 그렇게 못하는지 생각하며 스스로를 한심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인물이 살던 1920년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참 어려운 시기였을테니 그 시기의 학생들은 어마어마한 고민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울분과 고민이 터져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 날이 11월 3일 학생의 날(학생독립운동기념일)입니다.

하지만 100년 전에만 학생들이 고민이 많았을까요. 어느 시대든 자기만의 혼란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지금의 나름 평화롭다는 이 시기에도 학생들은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며 수많은 자신만의 고민을 안고 살아가지요. 여러분도 그럴 테지요.

학생의 날을 맞아 이 소설 속 휘영의 고민과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며 나는 왜 배우는지, 무얼 하려 사는지를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0년 전의 여러분 또래의 학생이 그 시대에서 고민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시대 속 여러분들의 삶을 고민하는 독서가 되길 바랍니다.

100년 전 시대의 고민을 짊어졌던 학생들을,  
지금 이 시대의 고민을 짊어진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 추천의 말

문재영 선생님의 소설 『휘영(輝煥)』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삶’에 대한 물음을 진지하게 제시합니다.

나와 가족,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생각해보게 하는 공동체에 대한 성찰을 요구합니다.

간결하면서도 탄탄한 이야기 구성은 독자로 하여금 소설에 빠져 들게 합니다. 감정이입은 물입이 되고, 서사는 한편의 영상이 되어 주인공 ‘휘영’의 입장에서 고민하게 합니다.

특히 글의 맺음에서 단편소설의 백미라 할 수 있는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잔잔하지만 주인공의 의지와 용기가 독자로 하여금 깊은 울림과 성찰을 하게 만들어 여운이 오래 남습니다.

이 소설이 우리 학생들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독을 권합니다. 이 책을 통해 ‘나의 삶’을 고민해보고 나아가 인간본연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류중학교 교장



## 차례

0장. 나의 어린 시절	8
1장. 7살, 1918년. 나의 가족	10
2장. 8살, 1919년. 3.1 만세 운동	15
3장. 16살, 1928년. 공부	21
4장. 17살, 1929년 3월. 손님	37
5장. 17살, 1929년 10월. 금혜	48
6장. 17살, 1929년 11월. 광주학생항일운동	68
7장. 18살, 1930년 1월. 학교를 그만두다.	84
8장. 18살, 1930년 1월. 경성행	91
9장. 18살, 1930년 1월. 함경도행	105
10장. 18살, 1930년 1월. 안범석	124
11장. 18살, 1930년 1월. 안휘영	132

## 0장. 나의 어린 시절

똑똑…처마를 두드리는 빗소리만 들리고 집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당 흙밭은 곳곳이 패여 빗물이 고였다. 사람이 없었냐면 그것은 아니다. 집의 마루 위에는 나와 어머니가 있다. 오늘도 어머니는 이 시간만 되면 마루에 앉아 멍하니 문을 응시하고 있다. 그 텅 빈 눈동자가 향한 문에 붙은 “입춘대길(立春大吉)”<sup>1</sup>이라는 글자는 이 집의 적막한<sup>2</sup>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게 붙어 있다. 어머니의 눈동자는 텅 비어버린 것 같지만 그 비어버린 눈동자는 빈 것을 채우려는 듯 문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 문에서 아버지가 들어올 때, 어머니의 눈에는 기대감이 어린다.

“범석이냐?”

---

<sup>1</sup> 입춘대길: 봄을 맞아해 운이 좋기를 바라며 문이나 벽에 붙이는 글귀

<sup>2</sup> 적막하다: 고요하고 쓸쓸하다.

하지만 그 질문은 아버지를 보고 대답을 듣지도 못한 채 끝나고 만다. 그리고 그때서야 몸을 돌아선 채 가족의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항상 한숨을 한번 쉬고 나서 신을 벗는다. 몇 년전만 해도 아버지는 그만 좀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그런 말마저 하지 않는다. 나 역시 그 시간만 되면 조용히 마루 구석에서 그것을 지켜본다. 조용히 있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설령 할 수 있는 말이 있더라도 어머니의 텅 빈 눈동자와 아버지가 한숨 쉬는 것을 보면 누구나 어떤 말도 무의미함을 알게 될 것이다. 어머니의 이 특별한 의식은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 1장. 7살, 1918년. 나의 가족

10년 전 7살의 난 온갖 귀여움을 받는 행복한 소녀였다. 내 이름은 휘영(輝煥)이다. “빛날 휘”에 “빛날 영”. 여자애치곤 매우 드문 이름이었지만 난 마음에 들었다. 뭔가 다른 동네 애들보다 더 특별해 보이기도 했거니와 집 안에서 난 빛나는 존재였으니까. 집밖은 무서웠지만 적어도 집 안에선 내 세상이었다. 어머니는 비록 몸가짐을 바르게 하라는 등 여성으로서의 자세에 대한 잔소리를 하긴 하셨지만 아버지와 두 오빠, 막내 삼촌의 사랑을 독차지했기에 난 집안에선 세상 무서운 게 없었다.

아버지는 집에 들어올 때마다 나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줬다. 아버지의 이름은 안길홍으로 동네에서 알아주는 부농(富農)<sup>3</sup>이었다. 난 잘 모르지만 땅도 꽤 크게 갖고 있어 이웃들의 부러움을 샀다. 뭐 그렇다고 아버지가 순사<sup>4</sup>한테 잘 보여서 그런 것은 아니다. 아버

---

<sup>3</sup> 부농: 농사의 규모가 크고 수입이 많은 농민

<sup>4</sup> 순사: 일제강점기의 경찰의 가장 낮은 계급. 지금의 순경



지가 말하길 조상대부터 땅이 많았다고 하니까. 예전엔 훨씬 더 많았다는데 마을 사람들 돕는다고 일부를 팔아넘겨서 남은 게 이 정도란다. 그걸 알기에 마을 사람들도 부자라고 싫어하고 질투하진 않았다. 하지만 조선이 망하고 난 뒤에는 일본이 쌀을 어마어마하게 사 갔기 때문에 아버지는 더 큰 돈을 벌기도 했다. 마을에선 가장 부자인 축에 속했기 때문에 나와 오빠들은 굶어본 적도 없다. 하지만 아버진 항상 아끼고 남을 도와야 한다고 해서 난 부자라는 느낌을 받은 적은 별로 없었다. 집이 남들보다 훨씬 더 큰 것도 아니었고 옷을 더 좋은 걸 입은 것도 아니었다. 부자들이 흔히 부리는 노비들도 없었다. 나도 그런 곳에 욕심은 없어서 별 섭섭한 것은 없었다. 부자라지만 어쨌든 농사꾼이었던 아버지는 큰오빠와 작은오빠도 농사일을 하길 바랐지만 삼촌이 큰아들은 공부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하기도 했고 큰오빠도 공부하길 바랐기 때문에 지금은 작은오빠가 함께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짓고 있다.

큰오빠의 이름은 안범석으로 학교를 다니는데 뭐가 그리 바쁜지 항상 집에 들어오는 게 늦었지만 귀가

하면 항상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빙긋 웃어줬다. 난 어린애 취급하지 말라며 짜증냈지만 돌이켜보면 사랑 받는 느낌을 좋아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큰오빠는 아버지가 농부라고 그래도 광주 공립 농업 학교를 다녔다. 학교에서도 공부를 곧 잘하는 편이라고 했고 난 그런 큰오빠가 자랑스러워 동네 친구들에게 자랑했던 적도 있다. 난 큰오빠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것도 늦게까지 공부를 하느라 그런 것이라 생각했다. 어머니는 일찍 들어오길 바랐지만 나처럼 큰오빠가 공부 잘하는 것을 내심 자랑스러워 했기에 저녁 먹을 때에만 들어왔으면 크게 뭐라고 하진 않으셨다. 하지만 난 공부를 잘하는 것과 별개로 큰오빠가 늦게 들어오는 걸 정말 싫어했다. 난 큰오빠가 빨리 들어와서 내 공부도 봐주고 놀아주길 바랐으니까.

잘난 형을 두어 질투가 날 법 한대도 성격 좋은 둘째가 있었으니 그게 내 둘째 오빠였다. 둘째 오빠 안범도는 항상 내 키를 가지고 골리킨 했어도 먹을 것이 생길 때마다 내 주머니에 몰래 넣어줬다. 키 좀 크라는 말을 덧붙이긴 했지만 뭐 나를 예뻐한다는 것은 알고 있

다. 아버지의 농사일을 물려받기 위해 큰오빠와 달리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아빤 작은오빠에게 괜한 미안함을 가진 것 같다. 어느 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신 날에 작은오빠에게 계속 “미안하다, 미안하다”를 반복했으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작은 오빠 “괜찮당께요. 다니라고 혀도 다니고 싶지 않당께요.”라고 말했다. 실제로 작은 오빠 가족 일을 돕는 게 자신의 사명<sup>5</sup>이라고 여겼고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기에 난 그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에게도 항상 “믿을 건 가족뿐이야. 가족의 일을 돕는 게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아냐.”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가족인 삼촌의 이름은 안길영으로 내 스승님이다. 아마 부모님이 나를 가르치신 것보다 많은 것을 가르쳐주셨을 것이다. 사탕을 항상 주머니에 넣어두고 나에게 글자를 가르치며 내가 잘할 때마다 사탕을 하나씩 주었다. 그리고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입이 닳도록 당부하였다.<sup>6</sup> “이젠 여성도 배워야 하

---

<sup>5</sup> 사명(使命): 맡겨진 임무

<sup>6</sup> 당부하다: 말로 단단히 부탁하다.

는 시대다”라는 말은 삼촌이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었다. 난 공부가 좋았지만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  
의 눈치를 보곤 했다. 어머니는 대놓고 표현하지 않았  
지만 그 말을 싫어하는 것이 분명했다. 왜냐하면 삼촌  
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따로 불러 여성은 사치스럽고  
거만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으니까. 난 삼촌의 말을 더  
좋아했지만 굳이 어머니 앞에서 그것을 티내진 않았  
다. 이 정도 사소한 의견 다툼을 제외하면 집 안은 꽤<sup>7</sup>  
평화로웠다. 난 집이 좋았고 함께 사는 가족들이 좋았  
다. 하지만 이런 나의 세상은 1919년 3월에 끝이 나버  
렸다.

---

<sup>7</sup> 꽤: 보통 정도를 훨씬 넘게.



## 2장. 8살, 1919년. 3.1 만세 운동

나의 세상이 바뀌기 전날 1919년 3월 9일 밤, 광주 공립농업학교에 다니던 큰오빠는 그날따라 집에 늦게 들어왔다. 매번 늦게 들어왔지만 저녁 먹을 시간은 맞추던 큰오빠는 그날 밤에 유독 늦었다. 자정이 다 되어 모든 집에 불이 다 꺼진 뒤에야 잔뜩 피곤한 얼굴로 들어온 큰오빠를 난 한껏 째려보았다. 집에 늦게 들어온 것도 섭섭했지만 어머니가 오빠를 걱정하느라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기 때문이다. 왜 오빠의 잘못으로 내가 어머니 눈치를 봐야 하는지 어렸던 나는 너무 억울했다.

“뭇헌다고 그라고 싸돌아 땡기냐? 땡 시냐? 땡 시?”

나는 큰오빠를 혼내고 싶어 어머니의 말투로 크게 소리쳤다. 큰오빠는 어머니의 말투를 따라 하는 나를 향해 한번 크게 웃고 “미안하당께!”라고 말했다. 그리

고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내 머리가 헝클어질 때까지 쓰다듬었다. 그 후 오빠는 어머니와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다. 큰오빠는 죄송하다고 했지만 어머니의 쌓인 걱정을 모두 잔소리로 들어야 했다. 큰오빠의 목소리는 혼나는 사람답지 않게 침착했으나 어머니의 잔소리를 문 너머로 들으며 난 너무 고소했다. 큰오빠는 날 하루 종일 어머니 눈치 보게 한 벌을 받아야 했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이 끝난 뒤에도 큰오빠는 몇십 분 동안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난 그것을 문틈으로 보며 킁킁했다.

“밥은 먹었냐? 안 먹었으면 쪼까 차려주끄냐?”

잔소리를 할 만큼 하셨다고 생각했는지 어머니는 그제서야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큰오빠는 웃으며 먹었다고 대답하고 삼촌의 방에 갔다. 삼촌도 크게 혼내주길 기대했지만 삼촌의 방에서는 아주 작은 말소리만

두런두런<sup>8</sup> 나올 뿐 혼나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난 실망한 채로 잠이 들었다.

그 다음날 3월 10일, 큰오빠는 학교를 가고 작은오빠는 아버지와 함께 농사일을 하러 나갔다. 삼촌도 무슨 일이 있다며 나갔다. 난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삼촌이 준 한글 공부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저히 시끄러워서 공부를 할 수 없었다. 밖에는 오빠와 똑같이 시커먼 교복을 입은 사람들이 엄청 몰려 나와 태극기를 들고 소리를 질러댔다. 사방에서 “대한 독립 만세”가 울려 퍼졌다. 난 그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기에 집에 들어오면 오빠에게 저렇게 똑같이 시끄럽게 했느냐고 꼭 한소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그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 뒤로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문 앞에서 발만 동동 굴렀고 아빠와 작은오빠는 그날따라 일찍 돌아와 그 옆을 지켰다. 그날 자정까지 큰오빠가 돌아오지 않았고 아빠와 삼촌은 큰오빠를 찾는다고 밤늦게 돌아오지 않았다. 난 큰오빠가

---

<sup>8</sup> 두런두런: 여럿이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나 모양

덜 혼났다고 생각하며 내일 집에 오면 나도 한소리를 하겠다고 다짐한 뒤 잠이 들었다.

그러나 이 다짐은 10년째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왜냐고? 그날 이후로 큰오빠는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기껏 돌아온 것은 안감<sup>9</sup>에 “안범석”이라고 적힌 학생 모 하나였다. 아빠가 동네에서 그거 하나 주웠다고 한다. 내가 큰오빠 나이가 된 지금까지도 집으로 돌아온 것은 그 모자가 전부다. 어머니의 눈동자는 아직도 큰오빠를 찾고 있고, 큰오빠를 찾느라 비어버린 어머니의 눈동자는 반대로 집안을 적막으로 채워놓았다. 난 큰오빠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이제 알게 됐지만 어릴 적만큼이나 큰오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 한다고 이렇게 집안을 풍비박산<sup>10</sup>낼 수 있는가? 그렇다고 그 만세 운동으로 우리 동네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기를 했냐면 그것도 아니다. 큰오빠의 만세 운동은 일본 순사가 아니라 우리 집안을 박살

---

<sup>9</sup> 안감: 옷 안에 덧붙인 옷감

<sup>10</sup> 풍비박산(風飛雹散): 사방으로 날아가 흩어짐



내 놓았다. 그래서 난 큰오빠의 행동을 알고 난 뒤부터 일본 순사보다 큰오빠가 미웠다.

집안에 가득 찬 적막과 어머니의 비어버린 눈동자가 무서웠기에 난 학교 가는 게 좋았다. 적어도 학교에 가면 어머니의 빈 눈동자를 볼 일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더이상 가지 않았을 때 집에서 어머니의 비어버린 눈동자와 함께 지내는 것이 나에겐 괴로운 일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그런 눈동자가 몇 번 커진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은 내가 16살이 되던 해에 있었다. 삼촌은 저녁 식사 중에 나를 고등 보통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말을 꺼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니의 빈 눈동자는 알 수 없는 분노로 가득 찼다. 어머니는 숟가락을 벽에 내동댕이치며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어머니는 나를 노려보았다.

“너까정 집을 떠날 작정이냐?”

어머니는 날 노려보며 소리쳤다.

“아녀라. 제가 보내달라고 안 했당께요!”

난 어머니의 눈이 너무 무서워 바로 내가 보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잡아땀다. 그 말은 반은 진실이었다. 내가 먼저 삼촌에게 이야기한 적은 없으니까. 삼촌이 보통학교 졸업하고 또 학교를 가고 싶지 않냐는 질문에 끄덕인 적이 전부였으니까. 적어도 내가 먼저 가고 싶다고 말을 한 건 아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의 말은 안 들리는지 삼촌을 노려보며 절대 보내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삼촌은 이제 여자도 배워야 하며 시대가 바뀌었다고 어머니를 끝까지 설득했다. 결국 아버지의 중재<sup>11</sup>로, 하교하자마자 바로 집에 돌아온다는 조건을 걸고서야 기나긴 말싸움은 끝이 났다. 어머니 입장에서 이 조건은 나에게 큰오빠처럼 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놓은 것이었다. 난 큰오빠처럼 될 생각도 없었기에 그런 조건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어쨌든 그 조건 덕에 1928년 큰오빠의 나이가 된 지금의 난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에 다니고 있다.

---

<sup>11</sup> 중재(仲裁): 다툼에 끼어들어 양쪽을 화해시킴

### 3장. 16살, 1928년. 공부

난 학교에서 우수한 편이었다. 큰오빠도 공부를 잘 했기에 타고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보단 삼촌 덕이 크다고 생각한다. 다른 친구들과 달리 삼촌이 한글 이후로 나에게 항상 이것저것 가르친 덕에 조선어는 물론 수학도 난 꽤나 잘 해냈다.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삼촌 덕이라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국어를 못했기 때문이다. 삼촌이 유일하게 국어는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유에 더해서 내가 국어 시간을 보통 학교 때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보통 학교 막 입학했을 때 군복을 입고 허리에 칼을 찬 선생님들이 무섭기도 했고 그 이후 군복을 벗고 칼을 차진 않았어도 여전히 일본인 선생님들은 가까이 하기가 두려웠다. 군복과 칼이 없어졌음에도 여전히 꺼려진 것은 일본인 선생님들의 눈빛 때문일지도 몰랐다. 일본인 선생님들의 눈빛에는 우리를 경멸하는<sup>12</sup> 것이 느껴졌다. 허리 옆에 찬 칼보다 눈에 넣어둔 칼이 더 무서웠

---

<sup>12</sup> 경멸하다: 깔보고 업신여기다.

다. 특히 보통학교 때 카츠라기 선생님이 무서웠는데 그 선생님이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그리 살갑게 쳐다보는 것을 보고 난 우리가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조용한 집에서 할 것이 공부밖에 없던 나는 2학기쯤에는 국어도 그럭저럭 중간은 했다.

집에서처럼 학교에서도 조용히 공부만 하던 나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항상 말다툼을 하던 친구와 유일하게 나에게 말을 거는 친구가 하나 있었다.

우선 말다툼을 하던 친구는 금혜라는 친구였다.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항상 의견이 갈렸는데 우리 둘 사이 언쟁<sup>13</sup>이 일어나는 주제는 주로 “만세 운동”이었다. 금혜는 항상 다음과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

<sup>13</sup> 언쟁(言爭): 말로 옳고 그름을 다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억압받는<sup>14</sup>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것이여야. 거기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면 도대체 뭣할라고 공부를 한대?”

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불편하여 꼭 지적을 했다.

“뜻은 좋은디 만세 운동한다고 뭐시 달라지냐? 미리건, 영길리, 불란서<sup>15</sup> 같은 나라들은 즈그들 이득만 챙기기 바쁘지. 우리가 만세 운동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도 없어야. 오히려 만세 운동한다고 우리 민족만 죽어나가고 일본놈들은 끄떡도 안 하느니 무슨 소용이 있다냐?”

금혜는 내 말을 들으면 항상 얼굴이 시뻘개졌다. 얼굴이 까무잡잡한 편인데도 빨개진 것이 학교 밖에서

---

<sup>14</sup> 억압받다: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억눌리다.

<sup>15</sup> 미리건, 영길리, 불란서: 미국, 영국, 프랑스를 한자음으로 표현한 말

도 보일 지경이다. 금혜는 시뻘건 얼굴로 반박하곤 했다.

“가만히 있으면 그게 죽은 민족이여. 우리 민족이 이런 운동이라도 안 했어봐라. 그럼 그냥 일본 놈들 노예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나는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을 들으면 난 그런 식으로 목숨을 잃으면 남은 가족은 어쩌냐는 말로 쏘아붙였다.<sup>16</sup>

“그러다가 니가 죽으면? 그럼 남은 니 가족은 어쩌냐?”

난 우리 가족을 떠올리며 울컥하여 반박하고 금혜는 이 반박을 들으면 잠시 아무 말도 못 하고 다시 주먹을 부르르 떨었다. 그렇게 떨다가 마지막 반격을 한다.

---

<sup>16</sup> 쏘아붙이다: 날카로운 말로 상대를 몰아붙이듯 공격하다.

“그럼 너는 공부를 왜 하나? 너는 공부해서 어디다 쓸래?”

난 다른 말에는 모조리 반박할 수 있었지만 이 질문에는 답을 할 수가 없었다. 난 공부를 왜 하고 학교를 왜 다니는가? 난 그냥 집이 불편해서 학교를 다니는 걸까? 난 이 질문만 받으면 말싸움에서 지고 항복하고 만다.

금혜는 이 논쟁을 나쁜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과도 했다. 어느 날 점심 시간 이후 덥고 나른하여 많은 친구들이 꾸벅꾸벅 졸았다. 일본인 교사인 사사모토는 오후 꾸벅꾸벅 조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쫄쫄. 이래서 조선인은 야만적이고 전근대적인<sup>17</sup> 열등한<sup>18</sup> 민족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일본인들이 너희들을 붙잡고 가르치고 배우는 거지. 너희들은 우

---

<sup>17</sup> 전근대적: 근대 이전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모습. 여기서 문명화되거나 발전되지 못한 모습을 말한다.

<sup>18</sup> 열등하다: 보통보다 수준이나 등급이 낮다.

리 일본인만큼은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배워서 쫓아가고자 애써야지. 이렇게 잠이나 자서야. 찢찢. 한심한 조선징들 같으니라고.”

이 말을 참을 금혜가 아니었다.

“지들이 그리 근대적이고 교양이 있어서 이웃 나라를 함부로 침략하고 겁박하는구마잉.<sup>19</sup> 웃기는 소리를 하는구나”

금혜는 혼잣말을 하듯 말했지만 금혜의 말은 교실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컸다. 사사모토가 조선말을 하는 것을 뻔히 모두 알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잠이 확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뭣? 이 년이 못하는 말이 없구나. 내가 이래서 조선징은 배워야 한다고 그리 말하는 것이다. 다들 보았

---

<sup>19</sup> 겁박하다: 겁을 먹도록 위협하고 협박하다.



느냐? 저만 야만적인 이야기를 선생님에게 하는 저 모습이 조센징의 모습이다.”

사사모토는 이 말과 함께 금혜의 뺨을 후려쳤다. 금혜는 뺨을 맞으면서도 소리쳤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니들처럼 안 살고자 배우는 것이여! 다른 민족을 침략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고자 배우는 것 이란 말이여!”

금혜는 이 뒤로 계속 사사모토에게 대들었고 사사모토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금혜를 마구 폭행했다. 친구들이 뜯어말리고 나서야 그 사달<sup>20</sup>이 끝났다. 이 사건 이후 난 금혜를 더이상 이기지 못하겠다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그보다도 내 머릿속에 떠오른 고민은 ‘그럼 난 왜 배우는 것일까’라는 질문이었다. 금혜와 싸우면 항상 마지막에 남는 그 질문. 사사모토의 말처럼 난

---

<sup>20</sup> 사달: 사고나 탈

우수한 일본인을 따르고자 공부하는 것인가, 아니면 금혜가 말한 것처럼 조선인으로 살고자 공부하는 것인가. 금혜는 이렇게 나에게 가장 큰 의문을 남겼다.

그 의문이 들어 언제는 나에게 유일하게 말 거는 친구에게 무심코 물었던 적이 있다.

“니는 왜 공부허냐?”

“니는 뭘 그런 피곤한 고민을 하고 앉았냐?”

그 친구는 피식 웃으며 반문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정순이었다. 반에서 유독 밝았던 내 짝 정순은 머리를 반듯이 묶었지만 앞머리 한두 가닥은 꼭 튀어나와 있었고 성격처럼 주근깨와 여드름이 엄청 자기주장하듯 올라와 있었지만 그 부분이 아니면 피부는 새하얀 편이었다. 1학년 처음 만났을 땐 새하얀 것을 빼면 어디서나 볼 평범한 체구에 얼굴이라 별 생각이 없었지만 조용히 공부만 하는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보고 범상치 않은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시내. 공부만 하면 뭘 재미여? 놀기도 해야제!”

대꾸도 하지 않는 나에게 정순이는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대답은 왜 안 하는지, 원래 말이 그리 없는지, 공부는 재밌는지, 어떻게 하면 공부는 잘 하는지. 대답도 하지 않거나 대충 하는 나에게 저렇게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귀찮음을 넘어 존경스럽기까지 했다. 어느 날엔 내 필통만 두고가도 내 필통에게까지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상상까지 했으니 말이다. 게다가 정순이와 집 방향까지 같았기 때문에 난 정순이와 쉬지 않고 대화해야 했고 덕분에 친해질 수 있었다.

정순이는 또 어느 날은 학교 끝나고 다른 학교 남학생을 보러가자고 꼬셔댔다.

“가시내야. 거기 1학년 머시매들이 진짜 멋져부러야. 근처 가서 하교하는 거 구경이나 하자. 어떠냐?”

“아니여. 난 바로 집 가야되야..”

“아따 찌끔 돌아서 가는 것뿐 아니냐. 다른 가시내들은 통학 열차에서 매일 머시매들 마주친다네. 학교랑 집이 가까운 게 한이네. 한이여.”

정순이의 끊임없는 신세 한탄과 광주고등보통학교 남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며칠째 듣는 나는 이제 남학생 이야기만 들어도 지긋지긋했다. 어느 날은 아예 약속까지 잡자고 난리였다.

“야. 내가 큰 건 하나 물어왔다. 내가 3학년 기옥 선배랑 친하지 않냐? 기옥 선배의 사촌 동생이 그 학교 2학년 학생이란다. 박준채랬나? 기옥 선배에게 부탁해서 약속을 잡아보자. 어떠냐?”

“니는 핵교를 머시매들 만나러 댕기냐?”

“머시매들 만나러 다니는 건 아니여. 그란디 이라고 가시내들만 보고 살고 잡진 았다. 하나님머시매와 가시나를 맹근 것은 의미가 있지 았것냐?”

“니가 나랑 뭘 말을 하것냐. 하느님이 니 남자 만날라고 있냐? 교회나 댕기면 몰라.”

“됐다. 됐어. 내가 무담시 이런 년이랑 친구 해갖  
꼬. 어휴.”

하지만 정순이가 마냥 철없는 친구라 하면 그것은 아니었다. 여름 방학에 정순이는 금혜랑 같이 가난한 마을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품속에 태극기를 숨겨 가지고 있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태극기의 생김새나 의미에 대해 열심히 설명을 해주기도 했다. 나도 하루는 따라나가 아이들에게 한글 공부를 가르치는 것을 돕기도 했었다.

“이걸 ‘가’라고 읽는겨.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라는 말 있제? 이 낫이 ‘ㄱ’이랑 비슷해서 나온 거여.”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은 보람된 일이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아이들은 연신<sup>21</sup>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초롱초롱 빛냈다.

---

<sup>21</sup> 연신: 연속해서 자꾸

“선생님은 이걸 어찌 다 안다요? 참말로 신기하네 요잉.”

이런 말을 하며 존경 어린 눈길을 보내는 아이들을 보고 있자면 뿌듯하기도 하지만 이리 대단치도 않은 내가 그런 시선과 존경을 받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다. 이 활동을 하고 돌아온 날 삼촌의 과한 칭찬은 더 부끄러웠다.

“이야. 네가 참말로 훌륭한 일을 했구나잉. 참말로 잘했다. 그것이 배운 사람의 책임 있는 자세인 것이여. 그게 지식인이여!”

난 그냥 친구 따라 하루 갔다 온 것뿐인데 삼촌은 집안에 대단한 지식인이 나온 것처럼 추켜세웠다. 과한 칭찬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싫진 않아서 자주 정순이를 따라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활동을 하는 내 모습을 어머니는 못마땅해했다. 어렸을 적에는 남을 돕는 것에 칭찬을 아끼지 않던 어머니

는 더이상 없었다. 어머니는 항상 내가 큰오빠처럼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했다. 어머니의 눈초리가 불편했던 나는 한두 번 나가고 더 나갈 수 없었다. 삼촌은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일을 더 하지 않는 것에 아쉬운 듯한 표정이었으나 어머니의 눈치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곤 더 말을 하지 않았다.

“이제 더 못나온다고? 아쉽다잉.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도움이 솔찬히<sup>22</sup> 되는데.”

정순이는 그만 나가야겠다는 내 말에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그 말을 들은 난 괜히 정순이에게 미안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정순이도 우리 어머니의 그 눈동자를 봤으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나부터 집에 데려다 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정순이에게 굳이 어머니가 싫어하신다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정순이에게 말 못 할 비밀은 아니었으나 솔직한 이유가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생각해 보면 난 어머니의 눈동자가

---

<sup>22</sup> 솔찬히: '상당히'의 전라도 방언

무섭기도 했지만 더 두려운 건 내가 늦게 들어왔다가 그 텅빈 눈동자마저 사라질까봐 무서웠던 것 같다.

그랬기에 학교만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와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으며 조용히 살았다. 눈치껏 어머니의 집안일을 돕기도 했다. 어머니는 공부보다 부엌일 배우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와 나를 둘 다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누구 편도 들지 않고 눈치껏 입을 닫았다. 그나마 삼촌만이 내 말동무가 되었다. 작은오빠는 나와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내가 피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작은오빠는 나만큼이나 큰오빠를 원망했는데 나와 달리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데 주저하지<sup>23</sup> 않았다.

“그 썩을 놈은 가족도 아니여. 내가 있냐잉, 그 짓 좀 하지 말라고 그라게 그라게 말렸는데. 지는 장남이라고 학교도 보내줬더니 집을 이라게 망글었는디 내가 속이 타것냐 안 타것냐?”

---

<sup>23</sup> 주저하다: 머뭇거리며 망설이다.



난 그 말에 한껏 동의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 말을 듣는 것이 왠지 모르게 불편했다. 다른 주제도 썩 편하지는 않았다. 작은오빠 항상 가족의 안전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 내가 학교를 가고 봉사를 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휘영아. 세상에 가족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거여. 우리가 이 집에 잘 사는 것도 아버지가 농사 짓고, 어머니가 우릴 재우고 먹였기에 가능한 것 아니겠어? 그걸 모르고 살면 그건 썩을 놈인 것이여.”

그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불편한 감정이 들었다. 난 아무리봐도 작은오빠한테 “썩을 놈”에 가까웠던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썩을 놈이 되지 않으려면 학교 가지 않고 어디 돌아다니지 않고 어머니를 도와야 했다.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아빠와 작은오빠를 챙겨야했다. 하지만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기에 썩을 놈이 될 수밖에 없었다.

어찌됐든 이런 이유로 내가 대화할 때 가장 편한 것은 삼촌이었다. 삼촌은 큰오빠처럼 항상 공부를 강조했다. 어머니 눈치를 보긴 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를 한 명의 인간으로 대접해 주는 느낌이 있었다. 고등보통학교에 간 뒤에도 삼촌은 학교에서 무얼 배웠는지 물어보았고 어려운 공부가 있을 땐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었다. 물론 국어는 빼고. 그래서 난 집에서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고 나름 평화롭다 생각하기도 했다.

## 4장. 17살, 1929년 3월. 손님

삼촌은 나에게 가장 편한 말동무였기에 집에 있는 동안에는 삼촌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때가 많았다. 어느 날 저녁 무렵, 삼촌의 인기척이 들려 얼른 마당으로 나갔더니 삼촌이 낯선 손님과 함께 들어왔다. 큰오빠가 돌아왔다면 딱 저쯤 보이겠다 싶었는데 어머니는 큰오빠가 온 줄 알았는지 보자마자 저녁상을 바닥에 엮고 말았다. 손을 바들바들 떠는 어머니는 삼촌이 그 손님을 소개하고 나서야 큰오빠가 아님을 알았다.

“행수. 지랑 같이 일하는 친구디, 애기 때 범석이 친구라 안 하요. 그래서 저녁이나 같이 먹을라고 데려왔소.”

큰오빠의 친구였다던 손님은 머리를 깎두기처럼 짧게 깎았고 피부와 수염이 거뭇거뭇했기에 삼촌이랑 일한다는 것이 어울리지는 않았다. 차라리 농사꾼인

아버지가 데려왔다면 더 자연스러웠으리라. 삼촌은 단정히 자른 머리에 동그란 안경을 쓴 인텔리<sup>24</sup> 느낌이었기에 같은 문으로 들어왔지만 다른 세상에서 온 인물 같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눈은 무얼 믿는지 반짝 빛나고 강렬해 그 점에 있어서는 삼촌의 동무라고 할 만하였다.

“안녕하십니까. 범석이 어릴 때 동무였던 장석준이라 합니다. 미리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갑자기 찾아와서 송구합니다.”

“워매, 우리 범석이 친구면 내 아들이제. 평생을 범석이만 기다렸는데 범석이가 그대로 컸으면 딱 이 짝만큼 컸겠네. 어서 어서 들어오게.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상을 다 얹어붙어서 새로 준비해야 쓰겠네. 아니지. 범석이 친구가 왔는데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야지. 방에 들어가 쏘매 기다리게. 닭 하나 잡아야겠다.”

---

<sup>24</sup> 인텔리: 지식인 등의 배운 사람들을 이르는 말.

어머니는 큰오빠의 동무라는 말에 평평 울며 두 손을 붙잡고 경황없는<sup>25</sup> 말들을 쏟아냈다. 식사를 다시 내오겠다며 얼른 방에 들어가라고 거듭 재촉했다. 어머니에겐 큰오빠가 살아 돌아온 것만큼 반가운 일이었던 것이다. 나는 수줍어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했다. 하지만 그 손님은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나에게 커다란 오른손을 내밀었다.

“반갑습니다. 범석이의 여동생 되신다지요? 범석이와 삼촌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영특한<sup>26</sup> 인재라고 칭찬을 하시기에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영겁결에 난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를 받으면서도 갑자기 내민 손에 당황스럽고 칭찬에는 부끄러워졌다. 하지만 가장 놀란 것은 큰오빠가 나의 이야기를 동무에게 많이 했다는 사실이었다. 큰오빠는 집에 항상

---

<sup>25</sup> 경황없다: 몹시 정신이 없어 다른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sup>26</sup> 영특하다: 남달리 뛰어나고 훌륭하다

늦게 들어와 머리만 쓰다듬던 기억만 나는 나에게는  
의외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큰오빠가 그리 말했소?”

“제가 만세 운동 한 해 전 경성에 올라가는 바람에  
그 뒤로 범석이는 보지 못하였지만은 그 뒤로도 1년간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편지에서도 항상 성실한 남동  
생과 영특한 여동생의 이야기를 했지요. 만세 운동 후  
범석이와 연락이 끊겨 궁금해하던 차에 범석이가 실종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  
다. 꼭 집에 찾아와 인사드리고 싶었으나 경황이 없어  
인사를 못 드리고 안길영 선생님 덕에 이렇게 오게 되  
어 너무 기쁩니다.”

광주를 떠난지 오래되어 나오는 유창한 경성말<sup>27</sup>과 청산유수<sup>28</sup>처럼 쏟아지는 말은 겉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예의 바르고 지적인 느낌을 주었다. 초면이었지만 손님의 이런 태도 때문인지, 큰오빠의 동무였다는 사실 때문인지 매우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다.

아버지와 작은오빠도 돌아온 후 다같이 저녁 식사를 했다. 그 손님은 나에게도 그리하였듯이 말을 굉장히 잘하였고 우리 가족의 호감을 샀다. 큰오빠를 좋아하지 않는 작은오빠도 호감을 느낄 정도였으니 얼마나 말을 잘하였는지는 더 덧붙이지 않아도 알 것이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 이곳저곳 돌아다닌 그의 경험은 우리 가족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도 충분했다.

“제가 1918년 경성으로 가 고등교육을 받았습시다. 가족들이 신경써 준 덕분이지요. 여기 길영 선생님이 그러셨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을 일으킬

---

<sup>27</sup> 경성말: 서울에서 쓰는 말. 표준어.

<sup>28</sup> 청산유수(靑山流水): 푸른 산에 흐르는 맑은 물처럼 막힘없이 말을 잘하는 모습을 이르는 말

힘이었다고 집안에서 말씀해주시곤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범석이는 잘 맞았지요. 그리고 수원으로 가고 등농림전문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광주도 대단한 도시지만은 경성에는 참 훌륭한 분들이 많더군요. 그 분들의 조언 덕에 그 후 바다를 건너 동경(도쿄)으로 가서 상과 대학을 갔습니다만, 다니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에서도 조선인이 대접을 못 받는데 동경은 오죽했겠습니까. 생김새가 비슷해서 일부러 티를 내고 다니지 않으면야 괜찮았지만 어색한 일본어 때문에 금방 들통나 무시당하기도 일쑤였지요. 또 보시다시피 제가 한 성질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은 일본인 교수가 조선인은 무식하고 교양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sup>29</sup> 것은 문화인인 일본인의 의무이고 앞으로 우린 짐승 같은 조선인을 사람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말에 열이 뻗쳐 교수와 한바탕 싸우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

---

<sup>29</sup> 병합하다: 두 나라가 하나로 합쳐지다.



니 이렇게 어릴 적 동무의 가족들에게도 환대<sup>30</sup>받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범석이의 아버지, 어머니는 저에게도 부모님이고 형제자매는 저에게도 형제자매니 자주 왕래하려고<sup>31</sup> 합니다.”

이 말과 함께 경성에서 겪은 일, 일본에서 겪은 일, 바닷길, 철길에서 겪은 수많은 일들은 우리 가족들의 관심을 끌었다. 비록 어머니의 사상과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오빠가 살아온듯이 무슨 말을 해도 반겼다. 고향을 제일로 생각하는 아버지와 작은오빠도 손님의 고향을 아끼는 태도에 기쁜 모양이었다. 아버지는 언제든지 오라며 술을 따르고 기꺼워했고 삼촌은 옆에서 흐뭇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난 오랜만에 집안에서 도는 훈훈한 분위기에 그 손님이 자주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sup>30</sup> 환대: 반갑게 맞이하고 정성껏 대접함.

<sup>31</sup> 왕래하다: 오며가며 서로 인사하고 지내다.

“밤이 깊었는데 여서 자고 가게. 범석이 방이 그대로 비어있으니 자고 가면 범석이기도 아마 좋아할 게야.”

“그리 하시지라우 형님. 우리 어매가 형님도 안 오는 그 방을 매일 같이 쓸고 닦아가고 겁나게 깨끗하당께요.”

온 가족이 붙잡은 덕에 그 손님은 우리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다. 어머니는 큰오빠의 방을 또 한번 정리하고 큰오빠가 돌아오면 깔아주려고 준비했던 새 이부자리를 꺼냈다. 그것만 보더라도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알 수 있었다. 난 오랜만에 어머니 눈동자가 생기로 채워진 것 같아 모처럼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었다.

오랜만에 편안히 들었던 잠에 든 나를 방 안으로 드는 햇빛과 마당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이 깨웠다. 오랜만에 설치지 않고 잔 편안한 잠자리였기에 난 가쁜 마음으로 문을 열어젖혔다. 그 손님은 마당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체조를 하고 있었다. 체조를 하던 그 손님은 나와 눈이 마주치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아. 혹시 저 때문에 깨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이게 습관이 돼서. 아침에 일어나 이리 하지 않으면 하루가 제대로 굴러가질 않더군요.”

“괜찮소잉. 그 체조는 경성에서 배운거시까요?”

“아 예예. 경성에서 학교 다닐 무렵 동무에게 배운 겁니다. 이걸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지요.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난 홀린듯이 고개를 끄덕였고 엉거주춤<sup>32</sup> 체조를 따라했다. 체조는 꽤나 어려웠고 체조가 끝난 뒤에는 은근히 숨이 찼다. 물론 내가 체력이 약한 탓도 있었겠지만.

“힘들죠? 이게 처음 하면 힘이 많이 듭니다. 처음 하는 것치곤 잘하신 겁니다. 그래도 자꾸 하다 보면 순사가 쫓아와도 절대 잡히지 않을 정도로 체력이 좋아지지요.”

“순사요? 손님도 만세 운동을 하시요?”

---

<sup>32</sup> 엉거주춤: 아주 앉은 것도 서지도 않고 몸을 반쯤 굽히고 있는 모양

난 만세 운동을 한다는 그의 말에 다시 그와 거리를 느꼈다. 분명 큰오빠의 친한 동무라면 당연히 만세 운동을 하는 사람일 것임을 추측할 수 있었음에도 그의 말로 직접 들으니 어쩔 수 없는 거부감이 생겼다.

“아. 네. 꼭 만세 운동이 아니더라도 이것저것 하지요. 우리 민족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민족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안길영 선생님과 연을 맺게 된 것도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이지요. 휘영씨도 영특하시니 언제 한번 안길영 선생님과 저희 일하는 곳에 와주시면은…”

“됐어라. 민족의 힘이니 뭐니. 그런 일을 한다고 우리 민족이 강해진대요? 오히려 그 반대지라야.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 민족 사람들 숫자는 줄기만 허지, 보시요. 당장 우리집만 해도 큰오빠가 사라져 버렸고요. 우리 어머니 뉘을 놓고 살아요. 손님 가족들도 그러는 걸 바라시지는 안 할 것이지요.”

“아… 아이고. 제가 허튼 말을 했군요. 그럼 제가 한 말은 잊어주시지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범석이 가족에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손님은 그 말과 함께 한참 동생인 나에게 꾸벅 고개를 숙였다. 손님의 사과에 나도 심했나 싶어 얼굴이 붉어지고 어색해진 그 순간 아침에 발을 돌아보고 온 아빠와 작은오빠가 돌아왔고 분위기는 다시 시끌벅적해졌다. 그리고 그 손님은 아침 식사를 하고 삼촌과 함께 떠났다. 난 내가 너무 심했다고 사과하려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한 채 손님을 보내버리고 말았다. 다시 집에 들르게 되면 꼭 사과를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 5장. 17살, 1929년 10월. 금혜

손님이 떠나고 난 후 몇 개월은 아무런 일도 없이 지나갔다. 난 어느 날과 다를 것 없이 학교를 다니고 어머니 눈치를 보고 삼촌에게 공부를 배웠다. 그런 일상적인 날들의 변화는 10월 31일에 더 차가워지는 날씨와 함께 찾아왔다. 그날 내가 교실에 들어갔을 때 교실은 왁자지껄 어수선했다. 항상 교실은 요란했지만 그날 교실은 친구들의 엄청난 분노로 채워져 있었다. 친구들은 자신의 화를 쏟아내고 있었고 사방에서 욕설이 들려왔다. 내가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던 차에 정순이가 내 등을 탁 쳤다.

“야 너 들었냐? 너 내랑 친한 박기옥 선배 알제? 일본 학생 놈들이 그 선배 머리를 잡아댕기고 그랬다 안허냐? 그래서 그걸 본 사촌 박춘재가 그 일본 놈과 싸움이 붙었다. 그 뒤로 우리 조선 학생들이랑 일본 놈들이랑 대판 싸움이 났다니께. 그래서 순사들도 오고 난리났어야!”

“뭐? 순사까지?”

“그러! 근데 그 놈들이 먼저 시비 걸었는데도 그 순사 놈들은 조선 학생들만 때리고 말이며. 도대체가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지금 다들 그것 때문에 허벌나게 열받아부렀어. 근데 이거 봐라. 이게 오늘 자 광주일보여. 근데 이 잡놈들이 다 조선인 잘못이라고 보도했다니께?”

정순이가 내민 광주일보 기사에는 조선인이 일방적으로 일본인 학생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질을 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그걸 보고 나조차도 눈썹이 찌푸러졌는데 친구들은 오죽했겠는가. 그리고 항상 분노에 차 있는 금혜는 말할 것도 없었다.

“니는 이래도 우리가 참아야 한다고 말할라냐? 속 없는 가시내.”

나는 그 금혜의 말에 딱히 할 말이 없었다. 안 참으면 우리가 어쩔 수 있냐라는 말이 입밖에 나오려고 했지만 그 뒤에 다른 친구가 가져온 소식에 내 말은 꺼낼 수 없는 분위기가 되고 말았다.

“11월 3일 일요일. 명치절(메이지 천황의 생일)로 신사 참배를 위해 전교생은 등교할 것.”

친구들은 안 그래도 열받는데 일요일에 학교에 나와 신사 참배를 하라는 소리에 욕설을 참지 못했다.

“이런 육시령을 낼 놈들 같으니라고. 조센징, 조센징하고 차별하면서 지들 천황 생일을 우리들보고 챙기라고?”

금혜는 의자를 걷어차며 분노를 삭이지 못했다. 저기에다 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물었다면 금혜는 그 의자를 나에게 집어던졌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난 입 다물고 조용히 있다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



다. 그러나 집이라고 조용할 리가 없었다. 이미 동네 분위기부터 또 무슨 일이 터지는 게 아닐까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분위기가 가장 걱정스러운 우리 어머니는 내가 들어오자마자 한 소릴 하셨다.

“니 학교 갔다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 와라잉. 허튼 짓 하지말고!”

어머니는 내가 운동에 휘말릴까봐 전전긍긍<sup>33</sup>했다. 난 어머니에게 걱정하지 말라 하고 집에 일찍 돌아오기로 약속했다. 나 역시도 그런 곳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별일 없이 지나갔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실제로 주말까지 별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일요일이 되기 전까지 말이다.

일요일 아침 학교에서 시킨 대로 난 교복을 갖춰 입고 등교했다. 광주고보(광주고등보통학교)에서는 신사 참배를 단체로 거부했다 하고 반 친구들 몇 명도

---

<sup>33</sup> 전전긍긍(戰戰兢兢): 몹시 두려워서 별별 멀며 조심하다.

안 하겠다고 우겼지만 난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우선 학교는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학교에 가서 분위기를 보고 몰래 빠져나오든지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학교는 생각보다 조용했고 난 늘 그렇듯 아무 생각 없이 신사 앞에 가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는 시늉을 했다. 그 때까지만 해도 하루를 무사히 마치는가 싶었다.

“야. 들었냐? 일본 놈들이랑 또 패싸움이 났대!”

“일본 놈이 우리 조선 학생을 칼로 찔러부렸다고!”

도대체가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를 이야기들이 학교에 퍼지기 시작했고 그 분노는 폭발하고 말았다. 그 분노에 금혜가 휘말리지 않을 리가 없었다. 금혜는 친구들에게 외쳤다.

“야! 뭣허냐? 얼른 나가서 같이 만세 안 부르고?”

금혜는 친구들을 뒹달하며 나가자고 외쳤다. 금혜는 어디서 챙겼는지 붕대랑 약을 한껏 들고 왔다. 싸우는 남학생들을 치료해 줘야 한다고 한다. 정순이는 친구들을 데리고 교실에서 주전자들을 모아 물을 받아오기 시작했다.

“소리 지르느라 다들 얼마나 목이 타겠냐. 이런 거라도 우리가 챙겨야제!”

친구들은 흥분하여 가방도 다 학교에 두고 밖으로 나갔다.

“야 넌 뭐하냐? 평소에 공부를 허면 뭐하냐? 지금이라고 있을 때가 아니여! 우리도 나가서 싸워야 한당께!”

난 어찌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했다. 친구들을 말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가 말릴 상황이 아니었으며 이 분위기에 나만 빠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정

순이는 내 팔을 붙잡고 나갔으며 정신을 차렸을 땐 수 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있었다. 광주에 있는 온갖 학교의 모든 교복이 보였으며 교복 뿐만 아니라 다른 어른들도 거리를 가득 채웠다. 광주에 이렇게 사람이 많았구나 싶을 정도로 많았다. 그리고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몇 시간째 외쳤다.

“조선 독립 만세!”

“식민지 노예 교육 철폐!”

“일본 제국주의 타도!”

내가 아는 광주 시내 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보이는 거라곤 사람들밖에 없었고 난 키도 크지 않아 사람들 속에서 건물들조차 보이지 않았다. 밀려가는 와중에 난 정순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꼭 붙잡았다. 하지만 웬걸. 내가 잡은 건 정순이가 아니라 모르는 여학생이었다. 난 너무 놀라 그 팔을 놓아버렸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도 않았다. 내 다리는 걷고 있었지만 내 의지가 아니었다. 어마어마한 사람

들의 파도에 휩쓸려 바다 속에 빠진 사람처럼 나는 이리저리 흔들렸다.

그때 순사들마저 곤봉을 사방에서 휘두르며 순식간에 그곳은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바뀌어 버렸다. 심지어 그 순사들 중엔 조선인 순사들도 있었다.

“이런 버러지 같은 놈들! 몽땅 해산 안 하느냐! 어디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이따위 짓이나 하느냐!”

그 순사는 유창한 조선말로 욕을 하며 학생들을 걷어차고 곤봉을 휘둘러댔다. 난 그 분위기가 너무 공포스러워 마음에 울음까지 터지고 말았다. 도대체 난 여기서 뭘 하는거지. 아무 생각도 없이. 조선 독립이 뭔지, 식민지 노예 교육이라는 게 뭔지도 모른 채로 그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흘러갔다. 시위대의 행진은 광주천 변을 돌다가 겨우 해산되었다. 온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된 채 천변<sup>34</sup>에서 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

<sup>34</sup> 천변: 냇물이나 강의 주변

“니 어디 아프냐? 집이 어디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나를 보고 근처 포목점 아주머니가 다가왔고 날 일으켜 주었다. 집이 어딘지를 묻는 물음에 난 말할 기운도 없어 손가락으로 광주천 너머를 가리켰다. 아주머니는 날 부축해 다리까지 데려다주었다.

“여기부터 지 혼자 갈라요.”

난 아주머니께 감사 인사를 올리고 천을 건넜다. 그날따라 광주천의 다리는 너무도 길었다. 아무리 걸음을 떼도 그리 짧은 다리가 그렇게 길어보일 수가 없었다. 그 때 누군가가 내 팔을 잡았고 난 순사인가 놀라 다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버렸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날 잡은 이는 금혜였다.

“으이그. 고작 사람들 사이에 휩쓸린 일이 그라코  
롬 무섭냐잉?”

난 금혜에게 그런 무시를 당한 게 억울했는지, 너  
무 힘든 와중에 아는 이를 만난 것이 기뻐서인지 모르  
겠지만 다시 울음이 터졌다.

“일어나그라. 집에 데려다주마.”

금혜는 나를 다시 붙들고 일으켜서 내 팔을 자신  
의 목 뒤로 두르고 다른 팔로는 내 몸을 부축했다. 금혜  
의 도움으로 나는 광주천 다리를 건너갈 수 있었다.

“니는 안 무섭냐잉?”

난 금혜에게 물었다.

“니 오빠를 잃어버렸됐나?”

난 질문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말이다.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를 모두 잃었다.”

나를 붙든 금혜의 몸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우리 아버진 농사꾼이었는데 하지만 니 아버지랑은 달랐다. 땅이라곤 하나도 없었으니. 내 어릴 적에는 먹을 것도 없어 배 곡기가 일쑤였지. 내가 배곯는 게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버지 자신이 배가 고팠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아버지는 한 가게에서 몰래 먹을 것을 훔쳤다. 하지만 참 재수도 없지. 하필 그게 일본놈 가게였어야.”

금혜의 몸은 더 떨려왔다. 그 말을 듣는 내가 떨려서 떨린건지 금혜의 몸이 떨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일본놈은 우리 아버지를 붙들고 도둑놈이라고 엄청나게 욕을 하고 그 일본놈의 하인들은 일본놈 명령에 우리 아버지를 몽둥이질을 했어야. 아버진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순사들에게 끌려간 것도 울 아버지뿐이었어야. 심지어 아버지를 끌고 간 순사는 조선놈이었당께. 그 사이에 얼마나 잘나갔는지 아까도 그 현장에 있더라.”

아까 조선말로 우리에게 욕하던 순사가 떠올랐다. 그 사람일까.

“어쨌든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이었다.”

이제 알았다. 떨리는 건 금혜가 아니라 나였다는 것을.

“그 일본놈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어야. 하인 몇 명만이 몇 달 감옥살이 한 게 전부다. 도둑놈 조센징 하나를 죽인 게 그들한테는 뭔 대수였겠냐? 더 웃

긴 게 뭔지 아냐? 몇 달 감옥살이한 하인 몇 명도 일본인은 하나도 없고 다 조선놈들이었다. 조선땅에서 조선놈을 때려죽인 놈들도 조선놈, 때린 놈 놔두고 잡아 가는 놈도 조선놈. 이 땅은 아주 개판이다.”

내 속은 끊임없이 울렁거렸다. 이제 내 몸이 떨어는건지 속이 떨어는 건지도 모르겠다.

“어머니는 아버지 시체 앞에서 펄펄 울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다. 사실 그걸 누가 아버지 시체라는 걸 말 안 해줬다면 난 아버지인줄도 몰랐을 거여. 얻어맞아서 얼굴을 알아볼 수도 없었으니까. 이 소식을 들은 큰아버지는 나를 데려가서 키웠다. 그리고 조선인 단체들의 도움으로 난 학교도 다닐 수 있었다.”

금혜와 가족은 어찌냐며 소리치던 내 모습이 떠오르며 이제 난 구토를 할 것 같았다.

“이런 나에게 더 두려울 게 뭐가 있냐? 넌 이 짓이 쓸데없는 짓이라고 했지만 난 너처럼 암전하게 살기엔 이미 그른 몸이다. 난 이미 그 때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죽은 셈이니깐. 이제 내게 남은 건 조선인이라는 것 하나뿐이다.”

구토를 할 것 같은 그 순간 우린 광주천을 다 건너 나의 집 앞에 도착했다.

“니는 이제 이런데 나오지 마라잉. 나도 뭐라고 안 할랑께”

금혜는 이 말을 남기고 내 집 앞에 나를 두고 갔다. 그 말을 들은 나는 금혜처럼 새빨강게 변했다. 내 얼굴을 보진 못했지만 내 얼굴에서 엄청난 열기가 느껴졌기에 그랬으리라 생각한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집에 들어갔다. 집에서 가족들은 발을 모두 동동 구르고 있었고 형클어진 머리와 눈물 범벅인 나를 보고 어머니는 짝 껴안고 엉엉 울었다.

“워매. 난 니가 죽은 줄 알았시아. 어쩌자고 오늘 같은 날 학교를 갔어! 아이고.”

어머니가 나를 세게 껴안아 준 것이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랜 일이라 나도 펄펄 울고 말았다. 어머니의 품 속은 너무 따듯했다. 펄펄 울면서 난 거듭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다시는 그런 곳에 가지 않으리라고 어머니 앞에서 거듭 다짐했다. 어머니는 날 잃을 뻔 했다고 생각했는지 저녁도 평소에 먹지 못하는 것을 차려놓고 얼른 먹으라고 재촉했다. 그걸 겨우 다 먹고 나서야 방에 돌아와 쉴 수 있었는데 그 때 삼촌이 이야기를 하자고 찾아왔다.

“좀 괜찮으냐?”

“예.”

“잘 했다.”

삼촌의 말에 난 당황하고 말았다. 물론 삼촌이 그런 쪽의 일을 하는 건 알았지만 한번도 나에게 만세 운동을 권한 적은 없었기에 당황스러웠다.

“휘영아. 배움이란 건 말이다. 실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야. 내가 항상 뭐라고 하던? 니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럴려면 배워야 한다고 했잖냐. 인간이라는 건 말이다. 아는 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여. 배워놓고선 자기 머리 속에만 쌓아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놈이고, 배워놓고선 그걸 자기 잇속<sup>35</sup> 챙기는 데 쓰는 사람은 못된 놈이다. 넌 네 아버지, 어머니, 오빠보다 하나라도 더 배운 사람 아니냐.”

난 그 말을 듣고 살짝 부끄러움이 일었다. 난 거기 가고 싶어서 나선 것도 아니거니와 오히려 절대 가지 않기를 다짐했으니까. 삼촌의 말에 따르면 난 어리석은 놈이었다. 아니 그 와중에 내 안전만 생각했으니 못된 놈일지도 몰랐다.

---

<sup>35</sup> 잇속: 이익이 되는 실속

“네가 어떤 생각으로 거기에 나갔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난 네가 그냥 분노로서 그 일을 행하진 않았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여. 네가 알고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간 것임을 바란다. 우리 조선이 왜 독립을 하여야 하는지, 우리 민족이 왜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고 외쳐야 한다. 알겠냐?”

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고 삼촌은 그런 나를 보고 머릴 한번 쓰다듬은 뒤 나갔다. 순간 큰오빠 생각이 났고 난 삼촌마저 떠나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도 대체 왜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들었다. 내 배움에 대한 부끄러움과 같이 가족을 잃었지만 나와 달리 용기가 넘치는 금혜에 대한 부끄러움과 가족에게, 특히 어머니에게 무책임하다는 자책이 뒤섞여 그날 밤 난 잠이 들지 못했다. 난 작은오빠에겐 썩을 놈이고, 삼촌이 볼 땐 어리석은 놈, 아니면 못된 놈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건 뒤로 광주시내 모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 난 집에서 쉴 수 있었다. 사실 휴교령이 아니더라도 학교에 갈 엄두가 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휴교령이 내려진 일주일동안 난 더 생각이 복잡해져만 갔다. 삼촌에 대한 부끄러움도 들었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사실에 어머니께 죄송해서 난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다. 오히려 휴교령이 풀린 11월 10일 난 학교를 가게 되어 다행이다 싶었다. 적어도 정순이 옆에 있으면 다른 생각을 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으니까. 정순이는 항상 나에게 씩씩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생각을 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오죽하면 정순이의 “머시매”이야기까지 그리웠을까.

하지만 다시 학교를 나갔음에도 세상은 조용해 질 줄 몰랐다. 일주일 전의 시위로 체포된 수십 명의 조선인 학생들이 아직도 풀려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난 내가 조선인임에도 잡혀가지도 않았고 잡혀간 이들의 상황을 보고 강한 분노도 느끼지 못했다.

‘난 친구들과 달리 그렇게 화가 나지 않는데…. 난 조선인이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며 옆의 친구들이 분노하는 것을 보면 매우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런 욕시럴 놈들. 내가 조만간 다 아작을 내버릴 거여.”

금혜의 시뻘건 얼굴은 다시 돌아올 줄 몰랐다. 친구들도 함께 화를 냈고 내 복잡한 감정을 풀어주리라 기대했던 정순이 역시 내내 분노만 쏟아냈기에 난 학교에서도 불편함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금혜의 눈빛은 더더욱 불편했다. 금혜는 실컷 화를 내다가도 나와 눈이 마주치면 잠깐 말을 멈췄다. 금혜 나름으로는 날 배려한 것일지 몰랐지만 아마 학교에서 나를 가장 불편하게 한 것은 금혜의 그러한 태도일 것이다. 그래서 난 더이상 학교에 나가고 싶지가 않았다. 집도 학교도 다 싫었기에 난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몰랐다.



난 일본인은 아니었지만 조선인도 아닌 것 같았다. 난  
우리 가족에 속한 것 같지도, 학교에 속한 것 같지도 않  
았다. 그냥 두려움만 남아버린 쓸모없는 몸뚱아리만  
남아버린 것 같았다.

## 6장. 17살, 1929년 11월. 광주학생항일운동

그렇게 파도에 휩쓸리듯 학교와 집을 왔다갔다 하다가 11월 12일이 되었다. 그날 아침, 광주고등보통학교의 학생들은 온 거리에 전단을 뿌리며 체포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했고, 식민지 교육을 폐지하고 시위의 자유를 요구했다. 그 외침은 집 안이고, 학교 안이고 안 들리는 곳이 없었다. 난 그 외침을 들을 때마다 속이 울렁거렸지만 그 외침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우리 학교 학생들도 그 외침을 듣자마자 나갈 준비를 했다. 금혜는 역시 오늘도 붕대와 약을 챙겨왔고 친구들은 넘어질까 치마를 걷어 올리고 고무줄로 강하게 여몄다. 난 그 분위기에서 무얼 해야 할지 몰랐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사람들에게 휩쓸리고 싶지 않았다. 난 내가 조선인이 아닌 것 같았고 조선인도 아닌 사람이 거기에 낄 자격도 용기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정순이가 화장실을 가자며 날 끌어냈다. 화장실에 들어간 정순이는 손을 한번 씻더니

“난 먼저 갈랑께 니는 볼일 다 보면 천천히 나와라  
잉”

하는 말을 남기고 나가버렸다. 정순이가 날 배려한 것임을 알았다. 내가 또 겁을 먹고 울까봐 걱정이 되었겠지. 금혜가 시킨 일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난 그것이 ‘넌 조선인이 아니니 끼지마라.’라고 들렸다.

난 화장실에서 하릴없이 얼굴에 물을 끼얹었다. 거울에서 보이는 내 눈은 불안해 보였다. 어머니의 텅 비고 움직이지 않은 눈빛도 아니었고 누군가처럼 확신에 빛나지도 못한 채 내 눈은 엄청나게 흔들리기만 했다.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 바들바들 떨리는 손처럼 내 눈도 바들바들 떨렸다. 난 그 거울마저 볼 자신이 없어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때 창밖 담 너머로 어마어마한 시위 인파가 보였는데 인파 속에는 커다란 사람이 커다란 손으로 전단지를 뿌리고 있었다. 까무잡잡한 피부. 짧게 깎은 머리. 그 손님이었다.

그 손님은 여전히 빛나는 눈빛을 갖고 있었고 커다란 손으로 사방으로 전단을 뿌리고 있었다. 난 무심코

그쪽 담장을 향해 건물을 나왔다. 친구들은 이미 다 나가버렸는지 학교는 조용했다. 건물 밖으로 나가자 전단 중 몇 장이 담장을 넘어 내 앞에 떨어지기도 했다. 전단에 그려진 학생들의 그림은 그 손님의 눈빛과 닮아있었다. 확고한 믿음으로 가득 찬 그 눈빛. 우리 어머니의 비어버린 눈빛과는 달랐던 그 눈빛. 나의 흔들리는 눈빛과도 달랐던 그 눈빛. 난 어떻게 그런 눈빛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나도 그런 눈빛을 닮고 싶어 무의식적으로 쪽문을 통해 그 손님 쪽으로 나갔다.

하지만 그 손님은 찾을 수 없었다. 수많은 인파에 쌓여 난 또 어딘가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나를 제외하고 모든 인파는 모두 각자 눈빛에 분노, 의지, 희망 등을 담고 있었다.

“일본 놈들은 조선땅에서 물러가라!”

누군가는 분노에 차서 이런 말을 외쳤다.

“식민 교육 철폐! 체포된 학생들을 석방하라!”

누군가는 의지를 담아 이런 말들을 외쳤다.

“대한독립만세!”

누군가는 희망을 담아 이런 말들을 외쳤다.

나 홀로 흔들리고 있었다. 내 눈빛이 흔들렸고. 그리고 내 몸도 흔들린 채로 흘러가고 있었다. 우리 어머니가 큰오빠를 찾듯이 난 그 손님만을 찾아 헤맸다.

그 순간 앞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말을 탄 일본 순사들이 곤봉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어마어마한 순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람들의 앞 열은 모두 무너지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지르는 비명에 난 정신이 나갈 것만 같았다. 분노와 의지와 희망이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어 버린 것 같았다. 순간적으로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잊은 채 다리가 풀려버렸다. 하지만 내 의지와 달리 행진하던 내 몸은 또 내 의지와 다르게 도망가는 인파에 몰려 흘러갔고 정신을 차

린 나는 가까스로 골목으로 빠질 수 있었다. 힘 풀린 다리로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골목으로 정신없이 도망가는 와중에 반대편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과 부딪치고 말았고 정신을 차렸을 땐 순사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었다.

“전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라!”

나도 모른 채 난 살려달라고 외쳤고 일본 순사라는 생각에 일본어로도 살려달라고 외쳤다.

“生かしてください(살려주세요)!”

하지만 경찰은 내 머리채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며 욕을 했다.

“닥쳐라. 천황 폐하의 은혜도 모르는 것들은 개처럼 맞아야 한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내 머리를 잡아끌던 순사는 유창한 조선 말로 말했다. 이전의 금혜의 아버지를 끌고 갔을지도 모를 그 조선인 순사였다. 끌려가던 중 내 신 한 짝은 어디로 갔는지 흰 양말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흰색 저고리는 어디서 묻었는지 모를 피와 진흙 범벅이었다. 내 모습에 난 더 공포스러웠고 아무 말도 못한 채 비명만 지르는 채로 끌려갔다. 살려달라고 한번 더 이야기해 봤지만 뺨을 몇 번 맞고는 살려달라고 외치지도 못했다.

난 경찰서 유치장에 던져졌다. 거기를 유치장이라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은 유치장이라기보다 아비규환<sup>36</sup>에 가까웠다. 학교에서 배웠던 연옥(煉獄)<sup>37</sup>이 있다면 바로 여기일까. 검은색 쇠창살 안에서 빨간 피를 흘리는 사람들, 쓰러져서 구토를 하는 사람들, 기절해 있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쑤셔 넣어져 있었다. 사람들의 옷은 사방이 찢기고 구멍 나 있었으며 얼굴은 흙과 피로 알아볼 수도 없었다. 그나마 정신이

---

<sup>36</sup> 아비규환(阿鼻叫喚): 여러 사람이 비참한 지경에서 울부짖는 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sup>37</sup> 연옥(煉獄): 죄를 씻기 위해 불로 단련을 받는 곳

멀쩡한 몇 명은 여전히 큰 소리로 순사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고함을 치고 있었다.

“학생들을 석방하라! 석방하라!”

“일제 타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대한독립만세!”

그리고 날 끌고 온 조선인 순사는 더한 욕을 먹고 있었다.

“네 놈이 어떻게 같은 민족, 같은 동네 사람들에게 이따위로 구느냐? 이 배신자야! 쓰레기 같은 놈. 버려지만도 못한 놈! 조선이 독립되면 넌 동네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것이다!”

“흥. 조선이 독립? 웃기고 있군. 난 천황 폐하의 은혜를 입어 문명화되었지만 너희 같이 은혜도 모르는



조선 놈들이 독립할 자격이 있는 줄 아느냐? 너희 맞으면서 배워야 할 것이다!”

길거리에서 듣던 구호와 애국가가 여전히 여기에 울려 퍼지려고 했지만 조선인 순사가 긴 장대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찌르고 곤봉으로 구타했다. 구호는 금세 힘을 잃었고 그 목소리들은 창살 틈새로 날아오는 곤봉 세례에 피가 터지며 비명으로 바뀌었다.

내 귀는 비명으로 가득 찼고 내 눈은 터지는 피와 쓰러져 가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사방에 피와 흠 냄새가 진동을 했으며 입 안에서도 피 맛과 흠 맛이 느껴졌다. 피부로 느껴지는 사람들의 열기는 여기가 지옥이 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했다. 그 열기 속에서도 우리 학교 교복이 보였고 그쪽으로 난 눈길을 돌렸다. 그중 낮이 익은 한 명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물러가라!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조선인들을 석방해라! 그리고 저 일본 놈 같은 조선 놈도 함께 일본으로 꺼져라!”

금혜였다. 금혜는 여전히 시뻘건 얼굴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날아오는 곤봉을 붙잡으려고도 했다. 금혜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은 정도로 강렬했다.

“이 배워먹지 못한 놈이!?”

“못 배워 먹은 놈은 네 놈이지! 같은 민족을 지켜주지 못할망정 일본 놈의 개가 되어 같은 민족을 탄압하는 게 배워먹은 놈이 할 짓이냐? 난 네 놈이 우리 아버지에게 한 짓도 알고 있다. 민족의 배신자 같은 놈아!”

그 조선인 순사는 금혜의 말을 듣고 금혜만큼 시뻘건 얼굴로 유치장 안으로 들어가 금혜를 마구 폭행하기 시작했다. 금혜가 맞는 것을 놀라서 보고 있던 나는 앞에서 곤봉에 맞아 넘어진 남학생들에게 밀려 넘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그때 날 일으켜서 구석으로 빼준 이가 있었다. 감사하단 인사를 하려고 돌았을 때 마주친 그 눈빛

은 내가 찾던 그 빛나는 눈빛이었다. 그는 난리통에 내 쪽으로 몽둥이가 날아오는 것을 막아주었다. 시간이 한참 지나 분위기가 진정된 뒤에야 우린 대화할 수 있었다.

“이런 곳에서 뵙네요.”

그 손님은 머리에 피가 철철 흐르는 채로 천연덕스럽게<sup>38</sup> 인사했다. 그 손님의 인사말은 그 손님의 얼굴과 매우 어울리지 않았지만 적어도 여전히 빛나는 눈빛과 여유로운 얼굴하곤 잘 어울렸다.

“아... 어떻게 여기에?”

“뭐 생각하시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체조가 아직 부족했나 봅니다. 웬만하면 안 잡히는데 말이지요. 하하”

---

<sup>38</sup> 천연덕스럽다: 시치미를 떼고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체하다.

그는 이 난리통에도 농담을 건넸다. 그 거뭇한 얼굴이 사방이 굵혀 있고 머리엔 피가 나며 날 붙잡아준 손도 흠과 피투성이인데도 말이다. 그 농담을 하던 와중에도 그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다.

“어차피 이들도 우릴 계속 붙잡아 둘 순 없을 겁니다. 또 휘영 씨는 이런 경험이 없지요? 아마 저들의 눈에 들지만 않았으면 곧 풀려날 수 있을 테지요. 그리고 휘영 씨는 만세 운동한 것도 아니니 금방 풀려날 겁니다. 그냥 길 가던 중 운이 나빠 붙잡힌 거겠지요?”

그는 따로 악의<sup>39</sup>가 없는 말투로 물었으나 난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푹 숙였다. 그 질문이 너무 부끄러웠다. 그 질문은 나약한 나를, 확신 없는 나를, 믿음 없는 나를 꾸짖는 듯했다. 아니면 그 확신에 찬 눈빛이 내 흔들리는 눈과 마주치기엔 너무도 빛이 나서 그랬을지도 모른다.

---

<sup>39</sup> 악의(惡意): 나쁜 마음이나 뜻

“안 무섭소?”

난 그의 질문에 질문으로 응답했다. 눈빛이 왜 빛나는지 차마 물을 수는 없었으니까.

“음…갑자기 그것은 왜 묻는지 모르겠군요. 솔직히 말하면 무섭지요. 두들겨 맞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딴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리 배웠으니까요. 힘든 이들을 외면하지<sup>40</sup> 말라고, 잘못된 것을 외면하지 말라고 배웠으니 그렇지요. 범석이도 그리 배웠기에 10년 전에 그랬던 것이겠지요.”

“큰오빠는 많이 안 무서워쓰까요?”

---

<sup>40</sup> 외면하다: 마주치기를 꺼려 피하다

“하하. 무슨 범석이를 성인(聖人)<sup>41</sup>으로 알았나 보네요. 범석이와 주고받은 편지를 보면 절반은 두려움에 대한 것이었어요. 내가 잘못됐을 때 걱정할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을 걱정했고 남겨질 가족들에 대해 미안해하고 무서워했지요.”

그 말을 듣고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에게 큰 오빠는 너무도 크고 강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의 꾸지람에도 항상 흔들림 없이 견뎌 내는 큰 오빠 내가 아는 가장 강인한 사람이었다. 너무나 강인해서 가족마저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오빠도 두려움을 느꼈다니.

“하지만 저기 제 친구는 두려움을 모르는 것 같은데요.”

---

<sup>41</sup> 성인(聖人): 지혜와 덕이 뛰어나 본받을 만한 인물. 여기서 두려움도 하나도 없는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임.

난 금혜를 가리켰다. 금혜는 실컷 얻어맞고는 그 조선인 순사가 천으로 입도 막아놓았다. 얼마나 맞았는지 입을 막은 천도 피로 붉게 물들었다. 하지만 금혜는 뭐라고 들리지도 않는 말을 계속해서 외쳐댔다.

“두려워서 저리 하는 겁니다. 두렵지만 그걸 이겨내기 위해 끊임없이 외치는 것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휘영 씨의 저 친구는 정말 용감한 친구지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용기니까요.”

금혜는 정말 두려운 것일까?

“저도 두렵습니다. 제가 하는 일로 가족이 해코지<sup>42</sup> 당할까 두렵고, 저에게 날아올 곤봉도 두렵고 여기엔 몇 번 갇혀 보았지만 갇힐 때마다 두려워요.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이 있으니 이 짓을 포기 못 하지요.”

“뭇이 더 두려운 것인가요?”

---

<sup>42</sup> 해코지: 남을 해치고자 하는 짓

그때 경찰이 창살문을 벌컥 열었다. 일본 경찰 뒤에는 매우 낮은 이가 보였다. 바로 아빠였다. 일본 경찰은 아빠를 쳐다보며 나를 가리켰고 아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를 물건 집어 올리듯이 끄집어내 아빠에게 던지듯 밀어냈다. 아빠는 날 껴안고 데리고 나갔고 사방에선 원성이 터져 나왔다.

“돈 많은 놈만 풀어주냐? 이 나쁜 놈들아!”

“다 똑같은 놈들이여!”

“네 놈도 배신자다!”

난 조선인들이 하는 원성을 들으며 얼굴이 붉어진 채 아빠를 따라나섰다. 그 원성에 부끄러움이 느껴졌지만 솔직히 날 가장 부끄럽게 한 것은 아빠를 만났고 여기서 나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 느껴졌다는 사실이었다.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려는 듯이 마지막으로 문을 나서기 전 손님을 바라보았고 그 손님은 여전히 빛나는 눈빛으로 날 보며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 다음은 금혜 쪽을 쳐다보았다. 금혜는 항상 그렇듯이 날 한번 흘



곳 보더니 다시 순사를 보고 악을 썼다. 이제 난 그 눈  
들을 더이상 쳐다볼 수 없었다. 난 민족의 배신자가 되  
어 경찰서를 나섰다.

## 7장. 18살, 1930년 1월. 학교를 그만두다.

그 뒤로 난 학교를 가지 않았다. 아 정확히 말하면 가지 못했다는 말이 더 맞겠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부모님 때문이었다. 그날 아빠는 집 안에 있는 현금과 귀한 물건들을 끌어모아 아빠가 아는 온갖 힘 있는 곳을 찾아가야 했다. 부모님에겐 참 다행스럽게도 난 이렇게 붙잡혀 본 것이 처음이고, 만세 운동을 했다는 확실한 물증도 없었기에 뒷돈을 받고 바로 풀려나올 수 있었다. 아빤 내가 살아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다행이라고 나에게 말해주었다. 하지만 단호하게 학교는 안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굳이 그 이야긴 아빠가 하지 않아도 됐다. 왜냐하면 어머니 날 학교에 다시 보내겠다고 하면 그만 두지 않겠다고 소리칠 정도로 예민해지셨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눈동자는 여전히 비어있었지만 그 뒤로 날카로워지기까지 했다. 그래서 결국 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

두 번째 이유를 말해보자면 나도 왜 학교를 다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금혜와의 다툼에서부터 시작된 이 고민은 삼촌이 주고 간 책들로 더 커져갔다. 삼촌은 내가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들었을 때 이를 원치 않는 눈치였지만 어머니 앞에서 삼촌도 아무런 말도 꺼내지 못했다. 대신 어디서 교재들을 잔뜩 구해가지고는 내 방에 넣어두었다. 물론 어머니 몰래.

“학교를 안 다니더라도 공부를 놓으면 안 된다잉. 공부를 놓는 순간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여.”

난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짐승과 뭐가 다른가’ 궁금했지만 이 주제로 삼촌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삼촌이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며 잠시 광주를 떠났기 때문이다. 난 나의 공부를 끝까지 놓치지 않는 삼촌에게 고마우면서도 떠난 것이 섭섭했다. 내 유일한 말동무마저 집을 떠나버렸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볼 것은 글밖에 없었다. 다만 한 편의 잡지에 실린 글을 보고 더이상 글도 보고 싶지 않게 되었다. 한 외국 철학자의 철학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적은 짧은 글이었다. 그 글은 우리 민족이 배워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모든 이들이 평등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세상이 우스웠고 이 세상에서 공부를 하는 내가 우스웠다. 이 땅에 더 이상 사랑이 어디있으며 평등이 어디있을까. 사랑이 있어 금혜의 아버지가 맞아 죽었는가. 평등이 있어 조선인 학생들만 탄압받는가. 도대체 난 이런 세상에서 무얼 배워서 무얼 하고자 하는가. 배워서 만세 운동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따르기엔 너무 무섭고, 가족들에게 미안했다. 그렇다고 배워서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은 더욱 부끄러운 일이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란 인물은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 생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니 정확히 난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난 일본인에게는 항상 깔보이는 존재였다. 일본인 선생님들은

묘하게 우릴 깔보았고, 길에서 만나는 일본인은 나와 내 가족들을 “조센징”, “센징”으로 불렀다.

하지만 난 조선인인가? 난 조선인들만큼 분노하지 못했다. 오히려 분노했던 큰오빠를 미워하기만 했다. 그리고 조선인들이 체포됐을 때 나의 조선인 아버진 나를 빼냈고 조선인들의 원성을 받았다. 조선인들이 모두 거기에 남았을 때 나 혼자 거기서 빠져나왔다. 학교를 그만둔 후 듣기로 금혜는 큰 고문을 받았다고 들었다. 나도 몰랐지만 우리 학교에는 소녀회라는 단체가 있었고 금혜는 소녀회 소속이었다고 한다. 소녀회 학생들은 만세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고문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 그들이 조선인이었다. 그들은 조선인으로서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혔다. 그럼 난 어느 나라 사람일까? 난 어느 나라 사람으로서 무슨 일을 하고자 공부를 해야 하는 걸까? 삼촌은 내게 배워서 배운 대로 실천하라고 했는데 난 뭘 배워서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 것일까. 이 무서운 것들을 다 이겨내고 공부를 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걸까. 난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난 아직도 그 손님이 말한 “두려운 것”이라는 대답이 너무 듣고 싶었다. 내게 날아오는 곤봉과 총알과 핏방울과 비명보다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이었던 걸까. 그것만 알 수 있다면 나도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삼촌에게라도 묻고 싶었지만 서울로 훌쩍 떠나버린 뒤로 돌아오지 않았다. 답을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과 내 유일한 말동무를 잃어버렸던 탓인지 난 집에서 유독 말이 줄었다. 어느 날이었다. 거울을 보았을 때 내 눈이 어머니의 눈과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흔들리던 내 눈은 이제 흔들림도 없고 비어가고 있었다. 내 눈이 비어가는 만큼 우리집은 더 적막으로 채워졌다.

아빠도 그걸 알았는지 아빤 어느날 내 방에 들어와 나에게 학교에 다시 가고 싶느냐고 물었다. 아마 내가 학교에 못 가 우울한 것이라고 생각하신 모양이었다. 난 대답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입에선 대답 대신 내내 궁금했던 질문이 튀어나왔다.

“삼촌은 언제 오신다요?”

아빠 잠시 멈췄지만 대답해주었다.

“모르겠다. 경성엘 간다고 하든디.”

“거기서 뭘 하신데요?”

“이번 만세 운동을 다른 지역도 함께 하도록 하겠다 안 허냐. 예휴. 정말 내 동생이지만 알 수 없는 놈이여.”

역시 삼촌도 뭔가를 하고 있었다. 나랑은 다른 사람이었다. 그때 내 입에선 또 의도치 않은 말이 튀어나왔다.

“저 경성 갈라요.”

아빠 내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우리 둘 사이에선 그 뒤로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아빠 당황해서 그런 것이겠지만 그 말을 꺼낸 나 역시 모르겠다. 그냥 지금 삼촌을 만나서 어떻게든 답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을까. 아빠의 눈은 파들파들 흔들렸다. 그 눈을

보고 궁금했던 것은 ‘그 눈에 비친 나의 눈은 언제 보일까’하는 점이었다.

“니가 그렇게 원한다면 그리 혀라.”

아빠의 답은 의외였다. 얼마나 의외였는지 난 내가 보내달라 해놓고선 다시 물었다.

“정말이여라우?”

“네 눈빛이 요새 니 엄마랑 똑같은 거 아냐? 방금 보내달랄 때가 좀 달라 보잉께 가라고 했다.”

“어머니가 안 보내주실 것 같은데요.”

아빠 그런 건 걱정 말고 짐이나 잘 챙기라고 하셨다. 아빠 그 뒤로 별 말을 하지 않고 안방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안방에선 어머니의 울음 소리가 어둠을 뚫고 간간히 흘러나왔다.



## 8장. 18살, 1930년 1월. 경성행

다음 날, 어머니는 말없이 내가 가면서 먹을 도시락을 챙겨서 내 손에 쥐어주었다. 어머니 아무런 말도 없이 그 비어버린 눈을 눈물로 채웠다. 난 어머니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았지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네 오라비가 널 경성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어야. 오빠 널 경성 삼촌에게 데려다주고 다시 내려올 것이다.”

난 아무런 말도 못하고 고개만 꾸벅 숙였다. 가족끼리 광주역으로 갔다. 가는 길에 우리 넷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아빠 담배만 빨았고 어머니는 눈동자를 눈물로만 채웠다. 작은오빠는 모르겠다. 차마 그쪽은 쳐다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작은오빠와 난 기차를 탔고 어머니 그제서야 입을 열었다.

“삼촌만 만나고 얼른 돌아오거라잉. 무사히 돌아오거라.”

난 고개만 꼭 숙었다. 좌석에 앉고 창밖으로 부모님이 보였지만 차마 그쪽을 쳐다보진 못했다. 복도 쪽에 오빠가 앉았지만 오빠 쪽도 쳐다볼 수 없었기에 난 하릴없이 내 무릎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때 작은 오빠가 말했다.

“힘들어도 인사는 해라잉.”

난 그 말을 듣고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부모님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난 그 눈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며 손을 흔들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기차가 출발해 부모님이 검은 눈자위처럼 작아질 때까지 보려고 노력했다. 역이 사라지고 온통 산과 논밭만 보였을 때가 되서야 난 창가에서 시선을 거두었다. 창가에 시선을 오래 두었던 것은 작은오빠 때문이기도

했다. 항상 가족과 부모님이 최우선이었던 작은오빠에게 난 얼마나 못된 자식이겠나.

“잘했다.”

작은오빠의 입에선 또 내가 모를 말이 튀어나왔다. 난 예상치도 못한 말을 듣고 놀라 오빠를 쳐다보았다.

“난 니가 뭘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앞으로도 모를지 모르고. 너도 모를지도 모르지. 난 네가 경성<sup>43</sup>에 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다면 가야 맞는 것이겠지. 그래도 돌아올 적에는 나에도 그 답을 알려주면 좋겠다.”

작은오빠는 담담하게 나에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한 마디 더.

---

<sup>43</sup> 경성(京城): 현재의 서울

“그래도 우리가 디디고 살 곳은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말어. 사람은 아무리 고민해도 가족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여.”

난 작은오빠의 그 말에 고개를 살짝 끄덕했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못했다. 작은오빠의 말이 맞든 틀리든 나를 위해서 해준 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난 그 말에 더 고민이 깊어졌다. 가족을 바탕으로만 살 수 있다면 가족을 다 잃은 금혜는 어떻게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던 것일까. 금혜는 내가 보기에 가족이 있는 나보다 더 빛나게 살아가고 있다. 오히려 아직도 많은 가족이 있는 나는 점점 더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철로 위에서 철쭉거리며 흔들리는 기차처럼 난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이 한강 다리에 놓인 거대한 철로를 나와 작은오빠를 싣고 기차는 건너가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한강은 어마어마하게 컸다. 엄청나게 큰 한강을 다리 밑에 두고 있자니 다시 두려움이 일었다. 가족을 떠나 난 이 낯선 곳에 온 내 선택을 걱정하면서.

내 몸이 살짝 떨리는 걸 알았는지 작은오빠는 내 손을 살짝 잡아주었다. 근심 어린 오빠와 같이 온 것이 내내 불편했으나 이렇게 큰 강을 함께 건너 주는 오빠가 있어서 안심이 되기도 하였다.

경성에 기차가 들어섰음에도 한참 가서야 경성역에 기차가 들어섰다. 큰 소리를 내는 커다란 강철 상자는 날 집어삼킨지 한참이나 되어서야 날 경성역에 뱉어놓았다. 경성역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 사이를 작은오빠 손을 잡고 겨우 비집고 나갔다. 역 앞에선 삼촌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오너라.”

삼촌은 대견스러운 얼굴로 내 머릴 쓰다듬었다. 그리고 작은오빠의 어깨에 손을 올려 토닥였다. 우린 아무런 말도 없이 경성역 근처 식당에서 밥을 챙겨 먹었다. 경성에서 먹는 첫 식사라 감흥이 느껴질 법하지만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았다. 작은 오빠 밥을 챙겨 먹고

이젠 내려갈 시간이라고 말했고 나와 삼촌은 작은오빠를 배웅하고 삼촌이 거주한다는 집으로 갔다.

“집주인에게 부탁해 방을 하나 더 내어달라고 했다. 이 방에서 지내면 된다.”

삼촌은 내 짐을 방에 내려주며 집에 대해서 설명해주었다.

“화장실은 마당쪽으로 나가면 있다. 내가 없을 때라도 집주인이 밥은 챙겨줄 것이여. 나가서 구경은 해도 되지만 멀리 나가진 말고잉. 경성도 만세 운동으로 시끄럽기 때문에 웬만하면 집에 있거라. 나가더라도 근처에만 머물고 저녁쯤에는 들어와야 혀. 네가 잘못 되면 난 광주에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심심하면 내 방에 들어가 책을 꺼내 읽어도 좋고.”

삼촌은 왜 경성에 왔느냐고 묻지 않은 채 몇 가지 알아야 할 것들만 말해주었다. 난 고개를 끄덕였다.

“궁금한 건 없냐?”

삼촌은 이런 질문을 예상하지 않았겠지만 난 광주  
에서부터 가져온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삼촌은 두려워 하는 것이 뭐시나요?”

“그건 왜 묻느냐?”

“삼촌은 순사들이 안 무섭소?”

삼촌은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알겠다는 표정으  
로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다.

“무섭지. 왜 안 무섭겠느냐. 그래도 난 조선인들이  
자신들을 잃을까봐 더 두렵다.”

“자신을 잃는다니요?”

“지금 조선이란 나라는 없지 않냐. 나라는 없고 사  
람만 남은 것이 조선이여. 근데 나라 없는 사람들은 말  
이다.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금방

있고 만다. 벌써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만  
놈들이 사방 천지지 않냐?”

난 금혜의 아버지를 때려죽인 조선인들과 금혜를  
때리고 날 끌고 가던 조선인 순사가 떠올랐다.

“조선인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당가요?”

“우리가 조선인이라는 걸 잊는 순간 우린 암것도  
아니게 되는거여. 우리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잊는다  
고 우리가 일본인이 되겠냐? 저들은 우릴 조센징으로  
부른다. 정작 우린 조선인이라는 걸 잊어가는디 저 일  
본인들만 우릴 아직도 조센징이라고 부른다. 참말로  
웃기는 일 아니냐? 우리가 우릴 조선인이라는 걸 잊으  
면 우린 조선인이 아닌 조센징이 되버리는 것이여. 난  
조센징으로 살고 싶지 않다.”

삼촌 말이 맞았다. 난 아무것도 아니었다. 조선인  
도, 일본인도.



“난 그게 두려워 치열하게 조선인이 되려고 애쓴다. 나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 그걸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넌 어떤 사람으로 살고자 하나?”

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네 나이에 이 질문에 답하긴 쉽지가 않을 것이여. 그란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안 그라몬 영영 넌 흘러가는 대로밖에 살 수가 없을 것이여. 누군가 시키는 대로, 공부 하라면 하고 일을 하라면 일을 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는 알 수가 없는 채로 말이여. 너도 지금 그걸 모르니 혼란스러운 것이 것지.”

난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안길영 선생님 계십니까?”

낮익은 목소리다.

“석준이가 날 찾아왔나 보구만. 나가서 같이 인사 하자.”

난 뒤에 이끌렸는지 서둘러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아! 휘영 씨도 같이 계셨군요. 경성에 오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경성에서 뵈다니 더욱 반갑군요.”

난 하고 싶은 말은 잔뜩 많았지만 고개만 숙였다.

“그래. 어쨌든 일로 왔는가?”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격문<sup>44</sup> 인쇄가 다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지부에서 선생님을 모셔 오랍니다.”

“아 수고했네. 지부는 내가 스스로 갈랑게 나 돌아올 적까지 휘영이 말동무나 해주게.”

---

<sup>44</sup> 격문(檄文):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부추기는 글

삼촌은 내 머릴 한번 쓰다듬은 후 집 밖으로 나갔다. 장석준은 삼촌에게 인사한 후 나를 보며 빙긋 웃었다.

“경성엔 답을 찾으러 오신 겁니까?”

난 속마음을 들킨 듯이 고개를 들어 그 손님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헤어지기 전 무엇이 두렵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고 헤어졌지요.”

“인자 석준 씨가 뭘 두려워했는지는 알 것 같네요  
잉.”

그 손님은 다시 한번 빙긋 웃은 후 다시 물었다.

“그럼 휘영 씨가 뭘 두려워하는지도 알게 되셨나요?”

난 무엇이 두려운 걸까.

“나는요. 도대체 나가 뭐 땀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계속 살게 될까봐 겁나고요. 또 만세운동하다가 순사에게 잡힐까봐 무섭고요. 그러다가 나가 잡혀 불문 어머니가 쓰러지실까봐도 무섭고요. 제 주변 사람들은 반짝반짝 빛나는데 저만 흔들리고 가라앉는 느낌이랑께요.”

그 손님은 또 한번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역시 휘영 씨는 들은 대로 훌륭한 인재입니다.”

“전 훌륭한 인재가 아니어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왜 사는지 고민도 안 하고 삽니다. 그냥 제 몸 하나 편하자고, 제 머리 하나 편하자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게 이 조선입니다. 휘영 씨나 저나 배우지 못했다면 그리 살았을 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전 조선인들에게 하나라도 더 배우게 하기 위해

애쓰는 겁니다. 적어도 휘영씨는 그 고민이라도 하니 조선에선 인재지요.”

난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짐을 느꼈다. 몇 달만에 울렁거림이 사라지고 있었다.

“전 아직 석준씨맹키로 삼촌맹키로 제 친구맹키로 눈이 빛나질 못하네요.”

그 손님은 내 말을 듣고 크게 웃었다.

“하하. 제 눈이 반짝이나요? 이렇게 험악하게 생겨서 눈이 반짝인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기분은 펍 좋네요. 하지만 휘영 씨 눈도 지금 반짝이고 있습니다.”

난 내 눈을 보진 못했지만 손님의 눈에서 내 눈을 확인하려는 듯 손님의 눈을 쳐다보았다.

“여기서 더 애쓰세요. 그 고민의 답을 찾는 순간 휘영 씨 눈은 휘영 씨 마음에 들 정도로 빛날 겁니다. 그 답은 광주에 없었을지라도 이 경성에서 찾을지도 모르지요. 아니면 다른 곳일 수도 있고요.”

“다른 곳이요?”

“음…사실 길영 선생님께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은 휘영씨가 여기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휘영씨에게 이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싶었거든요.”

손님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을 꺼냈다. 난 손님의 그 말을 듣고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다.

“범석이. 휘영씨의 큰오빠. 살아있습니다. 만주에 있지요.”

## 9장. 18살, 1930년 1월. 함경도행

“그게 무슨…?”

“적어도 10년 전엔 살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만주에 갔지요. 편지 끊긴 지도 오래되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3월 만세 운동에서 범석이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 순사들의 표적이 됐지요. 범석이는 잡힐 뻔했지만 동료들의 도움으로 광주를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경성 등에서 비밀 운동을 하다가 독립을 위해 만주로 건너갔습니다. 저랑은 틈틈이 편지를 몰래 주고받았지요.”

“그런디 고것을 왜 우리 가족에게 숨기셨소?”

난 벌떡 일어나 외쳤다. 내 목소리였지만 내 귀에 들리는 내 목소리에 분노와 떨림이 느껴졌다. 놀라움도 놀라움이었지만 그걸 가족들에게 숨겼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았다.

“저번에 말했지요. 범석이는 두려워했다고. 범석이  
가 살아있음을 알면 아마 휘영 씨 가족들이 해코지 당  
했을 겁니다. 범석이는 그걸 가장 두려워했으니까요.  
차라리 범석이가 죽은 것으로 다들 아는 것이 가족들  
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난 그 말을 듣고 털썩 주저앉았다. 오빠가 살아있  
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큰오빠가 살아있  
다.

“범석이는 이렇게 가족들을 지키고 자길 지키며 살  
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범석이의 답인 것이겠지요.”

그렇다. 이게 오빠의 답이다. 오빠는 자신이 누군  
지 자신이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며 살고 있  
었던 셈이다.

“우리 삼촌도 이 사실을 아시요?”



“선생님도 이걸 모르십니다. 안길영 선생님이 아셨다면 당장 새 신분을 만들어서라도 범석이를 조선 땅으로 데려왔겠지요. 안길영 선생님은 무장 투쟁은 원치 않으니까요.”

“그라운 우리 큰오빠는 지금 만주에서 싸우고 있는 중이시요?”

“예. 범석인 만주에서 없어선 안 될 명사수라고 하더군요. 범석이 손에 달아난 일본군 목숨이 한둘이 아니라는 소식입니다. 그 밖에도 범석이는 조선인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싸우는 법을 훈련시키고 있을 겁니다.”

큰오빠답다고 생각이 들었다.

“이 이야기를 휘영 씨에게 하는 것은 구치소에서 휘영 씨와 대화하고 범석이의 마지막 편지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범석이는 휘영씨를 걱정했어요. 휘영씨는 어린 것치고 똑똑하고 자존심도 있어서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힘들어할지도 모른다고요. 가족 중에

자기와 가장 닮아 통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휘영 씨가 될지도 모른다고도 하였지요. 실제로 구치소에서 휘영 씨는 혼란스러워 보였고 답을 찾고 있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아마 범석이와 지금도 연락이 된다면 휘영 씨에겐 말해주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리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범석이의 삶이 휘영 씨의 답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삶의 답은 우리의 상상 너머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나와 그 손님은 큰오빠 얘기를 했다. 삼촌이 돌아오는 기척이 들리고 나서야 우리 둘은 대화를 멈출 수 있었다. 삼촌이 오자 우리 셋은 함께 저녁을 먹었고 다 먹고 나서야 그 손님은 돌아갔다.

“뭔가 많이 배웠나 보구나.”

삼촌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예…”

삼촌의 눈에도 난 달리 보였나 보다. 오로지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답은 찾지 못했지만 그 답이 저 북쪽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다음날, 삼촌은 일찍 나갔다. 난 아빠가 챙겨준 돈 봉치를 챙기고 집주인에게 근처에 포목점이 있는질 물어 포목점으로 갔다. 거기서 내 몸에 맞는 바지와 셔츠를 샀다. 처음으로 바지와 셔츠를 입은 나는 땡기머리<sup>45</sup>도 잘랐다. 그리고 모자를 꼭 눌러쓰고 짐을 챙겨 들고나왔다. 거울을 보니 남자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삼촌의 방에는 언젠간 돌아오겠다는 짧은 쪽지만 남겼다. 사실 그 말 말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큰오빠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 그렇다고 언제 돌아오겠다는 약속도 할 수 없어서.

난 그날 바로 짐과 돈을 챙겨 들고 다시 경성역을 향했다. 경성역에서 함경도로 가는 가장 빠른 열차표를 구했다. 함경도만 가면 큰오빠가 있는 만주에 갈 수

---

<sup>45</sup> 땡기머리: 길게 땡은 머리의 모양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큰오빠의 삶을 보면 내가 왜 공부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난 계획을 세웠다. 함경도까지 기차를 타고 간 후 두만강을 건넌다는 아주 단순한 계획이었다. 이것을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말이다.

직원이 나를 수상스럽게 쳐다보긴 했지만 전과도 없었기에 손쉽게 표를 끊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난 혼자서 기차에 올랐다. 난 가는 길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창만 바라보았다. 창밖을 보면서 지난 삶을 돌아보았다. 공부를 참 열심히 했다. 10년 전의 나와 비교하면 여러 가지를 알고 배웠다. 하지만 10년 전의 나보다 난 못났다. 10년 전의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다. 부모님에겐 걱정 끼치는 딸이었다. 친구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친구가 아니며, 민족에게도 자랑스러운 조선인이 아니다. 난 10년간 왜 공부를 해왔나. 창에 비친 나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창밖에는 함박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바깥 풍경은 내가 다른 세상에 온 것

임을 알렸다. 그때 옆자리에서 무료하게 자던 한 중년  
아저씨가 말을 걸었다.

“청년은 어디 가요?”

단발에 셔츠를 입은 나를 젊은 남자로 오해 한 그  
아저씨의 말은 순간 나를 당황하게 했다.

“예?”

“목적지가 있을 것 아니요?”

난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내 고향을  
숨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최대한 경성 말로 돌  
려댔다.

“그냥 친척 집에 갑니다.”

아저씨는 알았다는 듯이 싱긋 웃고 말았다. 하지  
만 그 아저씨보다 날 더 당황하게 하는 것은 열차 문

을 열고 들어온 한 무리의 순사들이었다. 순사들은 한 명 한 명 신분을 확인하고 왜 여기까지 왔는지 물었다. 이런 절차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뭐라고 하지?

“どこへ、なぜ行ってるんだ?(어디로 가는 거고, 왜 가는 거지?)”

아저씨보다 나에게 먼저 물었고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알 수 없었기에 더욱 그랬다. 그 순간엔 도대체 내가 왜 혼자 이 기차를 탔는지 후회가 밀려왔다. 다시 순사들에게 끌려 갈까 봐 바들바들 떨렸다. 내 손은 누가 봐도 추워서 떨리는 손 같지 않았다.

“この子は私の妻の姪です。”I親を亡くしたので、私が引き取って育てようと思い、連れて行ってます。”(이 아이는 내 처조카입니다. 부모를 잃어 내가 키우려고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까 말을 걸었던 아저씨가 대신 대답했다. 난 아저씨를 쳐다봤고 그 아저씨는 나를 향해 한번 웃어주었다.

“身分証を見せろ。(신분증을 보여라.)”

아저씨는 신분증을 보여주었고 일본 경찰은 나와 아저씨를 한번씩 노려보다가 신분증을 던지고 다른 객석으로 옮겨갔다. 난 떨리는 손을 내 다리 밑으로 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순사들이 다른 객차로 옮겨간 뒤에야 아저씨는 말을 걸었다.

“전라도에서 왔소?”

난 놀라 아저씨를 쳐다보았다. 아저씨는 한번 웃더니

“북쪽에 지낼 곳은 있어서 가는 거요?”

라고 물었다.

“아니요. 지금은 무작정 가고 있습니다.”

“그럼 내리면 일단 내 집으로 갑시다. 하룻밤 재워 주겠소.”

열차를 여럿 갈아타 상삼봉 역에 도착한 것은 저녁 썸이었다. 광주와 달리 북쪽은 매서운 바람이 불었다. 원래 이 바람에서 날 지켜줄 것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무슨 정신으로 혼자 기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나 싶었다.

“저쪽으로 가면 집이 있소. 갑시다.”

난 아무 말 없이 아저씨를 따랐다. ‘이 아저씨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나에겐 선택권이 없었다. 아저씨의 집은 낡은 나무로 지은 집이었다. 차가운 바람에 집도 떨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 떨리는 집안으로 들어간 뒤 아저씨는 물 한 잔을 내왔다.

“혼자 사는 집이라 대접할 게 많지 않구려. 식사를 준비할테니 저쪽 방에서 짐을 풀고 쉬시오.”

난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한 뒤 방으로 들어갔다. 혼자 사는 집이라 하는데 방은 청소되어 깨끗했기 때문에 그 방은 사람이 지내던 방 같았다. 낡은 책상 하나가 있었고 따뜻해 보이는 이불이 깔려 있었다. 난 짐을 구석에 두고 책상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떨리는 창밖엔 떨리는 조선인들이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것이 보였다. 나무뿌리, 나물 따위였다.

“식사하게 나오시오.”

난 밖으로 나갔다. 된장에 무친 나물 몇 가지와 배추를 넣어 끓인 국과 밥이었다.

“혼자 산 지 오래되어 밥은 스스로 한다오. 맛은 장  
담할 수 없으나 맛있게 드시오.”

“감사합니다.”

난 처음으로 입을 떼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어찌자고 전라도에서 이 추운 곳까지 온 게요?”

아저씨는 열차에서 물었던 것을 다시 한번 물었다.

“독립 운동이라도 하러 온 거요?”

“아 아닙니다!”

난 무슨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 대답했  
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난 솔직히 대답했다. 나도 어찌자고 이곳에 혼자 온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무슨 최면에라도 걸렸다가 이제야 깨어난 사람 같았다. 할 말이 없어진 나는 다른 말이라도 해야겠다 싶었다.

“제가 전라도에서 온 것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걸 어찌 모르겠소. 전라도 사람이 억지로 경성 말 쓰는 것 같았는데.”

아저씨는 물음에 답하며 껄껄 웃었다. 나는 그 웃음에 괜히 민망하여 입 속으로 밥을 밀어 넣었다. 그리고 또 다른 걸 물었다.

“저를 왜 도와주셨습니까?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까.”

아저씨는 껄껄 웃던 웃음을 멈추고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10년전 쯤, 광주 사람에게 빚진 것이 있대요. 이렇  
게라도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지. 어디 밤도 긴데 동향  
사람 이야기 좀 들어보겠소?”

아저씨가 광주 사람에게 빚진 이야기는 꽤나 서글  
픈 이야기였다. 오빠가 사라지던 해 3.1 운동으로 전국  
이 시끄럽던 날 치안<sup>46</sup> 유지를 이유로 이 지역에 일본  
군인들이 늘어났다고 했다. 그 때 물건 팔러 나갔던 아  
내가 일본 군인의 말에 치여 쓰러졌다. 아내를 친 군인  
은 아내가 치이든 말든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이 군인  
에게 항의하던 아들이 끌려갔다고 했다.

“보다시피 우리가 무슨 돈이 있었겠소. 아내는 제  
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고 말았대요. 내 아들은 배  
운 것이 변변찮으나 그래도 학교도 다니고 해서 그런  
지 옳지 못한 것에는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끌려가서  
도 빌지 않고 할 말을 따박따박 해댔지. 그 결과가 어떻  
겠소?”

---

<sup>46</sup> 치안(治安): 국가 사회의 안전과 질서

슬픈 기색, 울음 섞인 소리 하나 없는 아저씨의 말은 창밖의 바람처럼 매말라 있었다.

“일본 경찰은 아들을 죽을 듯이 두들겨 패고 마을 사람들에게 본보기 삼아 마을 한 가운데 아들을 묶어 놓았소. 젊은 아이였지만 제 때 치료받지 못했으니 아들은 죽어갔고 난 그걸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바람처럼 매마른 아저씨의 말에 분노가 살짝 어렸다.

“마을 사람들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소. 다들 눈치만 볼 따름이고 심지어 나까지 피해다니더이다. 괜히 나랑 어울리다가 자기들도 피해볼 꺼라 생각했겠지. 일본놈들보다 조선놈들이 더 미웠소. 매일 인사하고 먹을 것을 나눠먹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심하단 말이오? 하지만 가장 미운 건 나였소. 아버지라는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니 말이오.”

분노가 어린 아저씨의 말은 다시 잠잠해졌다.

“어두운 밤에도 난 발만 동동 구르며 아들 쪽을 쳐다보았소. 정말 세상 그렇게 무력함을 느꼈던 때가 없었지. 밤에 잠도 못 자고 아들만 쳐다보고 있었소. 아들이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난 정말 내 스스로를 죽이고 싶을 정도였지. 그러길 이들이 되던 새벽. 아무도 못 다가가던 내 아들한테 다가가던 한 청년이 보였소. 그 청년은 새벽 몰래 내 아들을 풀어내어 아들을 부축해 단상을 내려왔지. 그리고 뒷골목으로 사라졌소. 난 너무 놀라 그 골목으로 몰래 달려갔대요.”

아저씨의 입에 다시 미소가 걸렸다.

“난 내 아들과 그 청년을 데리고 우선 집으로 데려왔소. 아들은 이미 만신창이였지. 사실 시체를 데려온 것이나 다름 없었다요. 그날 아침이 되기 전 아들은 죽었거든. 청년과 나는 내 아들을 들고 뒷산에 가 몰래 묻

있지. 내가 펄펄 울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 그 청년은 땅을 파고 아들을 묻어주고 기도도 해주었소.”

“그 청년이 광주에서 온 청년이었습니까?”

“그렇다오. 나이도 딱 손님 나이로 보였소. 집에 돌아온 뒤 난 그 손을 붙잡고 펄펄 울었소. 한심한 아버지를 구원해주어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이야기했지. 그 청년이 있었기에 이렇게 질긴 삶을 아직도 살아온 것일지도 모르겠소.”

아저씨는 그 때를 회상하는지<sup>47</sup> 밥도 먹지 않은 채 숟가락만 쥐고 있었다. 그러다가 다시 빙긋 웃고는

“그 청년이 전라도 사투리가 섞인 경성말을 했어요. 그래서 자네의 말을 듣자마자 그 청년 생각이 난 거요.”

---

<sup>47</sup> 회상하다: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다.

“그랬군요. 그 청년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합니까?”

“광주에서 왔다고 한 것을 빼면 그런 건 자세히 말 해주지 않았소. 그런 사정이 있다고만 했지. 그냥 두만강을 건너가야 한다고만 했소.”

두만강? 큰오빠를 만나기 위해 두만강을 건너가야 했던 나는 그 청년에게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다. 두만강을 건너야 했던 내 또래의 광주 청년이라니. 물론 나와는 달리 더 흔들리지 않는 용기 있고 단단한 인물이겠지만 말이다.

“난 두만강을 건너야 한다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독립군에 들어가나 보다 싶었지. 난 그냥 두만강에서 건널만한 지점, 일본군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길 정도만을 알려주었소. 그걸 듣고 청년은 부탁 하나만 남기고 다음 날 떠났지.”



“어떤 부탁이었습니까?”

“자기 이름을 말해주며 내가 죽으면 이 편지를 광주의 자기 집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이었소. 내가 당신이 죽은 걸 어찌아냐 했더니 동료들에게 자기가 죽으면 이 집으로 죽은 소식을 알려줬다했지.”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안범석이었다오. 그러고보니 손님과 생김새도 묘하게 비슷하구려. 특히 눈이 닮았소.”

## 10장. 18살, 1930년 1월. 안범석

나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빠였다니. 내가 느꼈던 묘한 동질감이 괜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안 나는 멍하니 아저씨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아는 사람이오? 동향이니 알지도 모르겠군.”

난 아저씨에게 이걸 사실대로 말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입만 뻐끔 거렸다. 대신 질문으로 답했다.

“혹시 그 청년이 주었다는 편지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렵소. 다른 사람의 편지를 함부로 보여주기는 좀 그렇군. 게다가 그 청년은 내 은인이오.”

난 그 편지를 너무나 보고 싶어 솔직히 털어놓았다.

“전 안휘영이라고 합니다. 전 그 청년의 여동생입니다.”

이번에 입을 벌린 채 바라보는 건 아저씨 차례였다. 아저씨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일어나선 편지를 가져왔다.

“여기 있소.”

“바로 믿어주시는 겁니까?”

“어쩐지 닮았다했소. 그리고 여동생 이야기도 했으니 손님은 이 편지를 볼 자격이 있을 것 같소. 사실 10년이나 됐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으니 가족에게 전해주는 게 맞을지도 모르고. 게다가 이리 만난 것도 인연이 아니겠소? 여기서 읽기는 싫을테니 식사

를 마치고 방에 가서 읽으시구려. 사실 그 방은 내 아들의 방이고 손님의 오빠도 그 방에서 머물렀소. 의미가 있을 것ियो.”

나는 편지를 건네받았다. 얼른 편지를 보고 싶었던 나는 남은 밥을 입에 털어넣고 잘 먹었다고 인사한 뒤 방으로 돌아왔다. 사람이 사는 것 같다고 느꼈던 방은 오빠가 지냈던 방으로 바뀌어 있었다.

책상에 앉은 뒤 편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바로 펼치진 못했다. 10년 전쯤 나의 나이 때의 오빠는 여기서 무얼 했던 것일까. 나처럼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살아갔던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며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가족들에게.

이 편지를 받으셨다는 것은 이미 제가 세상을 떠나는 의미겠지요.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것이 가장 큰 불

효라는데 그 큰 불효를 제가 저지르게 되었으니 너무도 송구합니다.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염치 없는 불효자가 감히 여쭙 것은 아니지요. 제대로 안부도 전하지 못한 채 떠나버린 점 역시 매우 죄송합니다. 가족의 안위를 지키기 위함이니 너무 원망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모님의 정성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것과 세상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제가 배운 도덕은 말로만 존재할 뿐 세상에 없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에게 밟히고 조선인은 일본인에게 밟히는 것이 이 세상이지요.

전 이런 세상에 살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전 인간은 모두 평등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라고 배웠습니다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배우고도 어쩔 수 없다며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라는 어머니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해보았지요. 하지만 밖에서 맞아 죽고, 굶어 죽는 사람들을 보고 배불리 먹으며 배운 제가 세상은 그

런 것이라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전 일어났고 정신을 차리니 이 추운 땅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와 보니 어머니, 아버지. 전 너무도 두렵습니다. 저 혼자 이 추운 땅에 온 것이 두렵고 일본군의 총알이 무섭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다시 못 볼 것이라는 생각에 몸이 떨립니다. 동생들을 다시 못 본다는 사실에 눈이 떨립니다. 전 이리도 나약한 아들입니다. 세상엔 강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전 왜 이리 나약한 것일까요.

하지만 전 강한 척이라도 해보려 합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척이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 제가 배우고자 하는 일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비록 두렵고 강한 척하는 나약하고 나약한 저이지만 적어도 부모님께 부끄러운 자식은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너무도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해주신 어깨동무가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너무도 그리웁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한번 안겨보고 싶

습니다. 하루라도 어머니에게 안긴 채 이 어둡고 두려운 밤을 보내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빨아주신 뽀뽀한 교복을 다시 입어보고 싶습니다. 떠나기 전날 저녁 어머니가 해주시겠다고 한 저녁을 못 먹고 간 것이 가장 큰 후회입니다. 늦은 시간이라도, 배가 아무리 불러도 차려달라고 할 걸 그랬습니다.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범도와 휘영에게도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특히 가족을 아꼈던 범도는 날 미워할지도 모르겠구나. 너에겐 미안하단 말밖에 할 수가 없다. 나 대신 가족들을 잘 챙겨주길 바란다. 휘영이는 이 편지를 볼 때 짬 학교도 다 졸업했을지도 모르겠구나. 아마 넌 똑똑한 아이니 지금쯤이면 나와 같은 혼란을 겪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너라면 나와 달리 더 잘 이겨냈으리라 믿는다. 졸업하는 너에게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줬어야 했거늘. 너무도 미안하구나.

머나먼 북녘에서,  
불효자이며 불민한 형, 오라비 안범석.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눈물 자국이 가득했다. 두려운 이들의 오래된 눈물 자국과 새 눈물 자국이 범벅된 그 편지를 내려놓고 난 조용히 한없이 울었다. 창밖의 눈도 조용히 한없이 내렸다. 어두컴컴한 그 밤에 창가에 놓인 기름등만이 유일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렇게 나의 북쪽에서의 첫날 밤이 지나갔다. 10여 년 전 이 방에서 나와 똑같이 두려워 울고 있었던 사람의 밤도 이렇게 지나갔을 것이다.

다음날, 나는 짐을 다 챙기고 아저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나를 구해준 점, 큰오빠를 챙겨준 점에 대한 감사였다.

“은혜를 입은 건 나요. 은혜를 조금이나마 동생에게라도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요. 그대는 이제 어디로 갈 거요?”

“저도 두만강을 건너고자 합니다.”



“여자의 몸으로 건너기는 쉽지가 않소”

“누군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간의 침묵. 그러다가 아저씨는 약도 하나를 건넸다.

“오늘 밤까진 여기에 머무시오. 해가 지면 가는 길을 알려주겠소.”

## 11장. 18살, 1930년 1월. 안휘영

“이 길은 만주로 가는 밀무역하는 상인들이 이용하  
는 길ियो.”

아저씨는 해가 지자 상 위에 약도를 펼쳐두고 나에  
게 설명했다.

“여기에 일본군이 순찰을 한다오. 하지만 일본군들  
도 밀무역이 있음을 알고 있지. 무기만 가지고 있지 않  
으면 돈 몇 푼에 보내줄 거요. 여기만 통과하면 이제부  
터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조심해야 하오. 여기 언덕을  
넘으면 강이 보일 거요. 이 지점까진 같이 갑시다. 강  
은 혼자 건너야 하오. 지도에 보이는 부분이 가장 폭이  
좁은 곳이나 강이 얼어 미끄러우니 건너기가 쉽지는  
않을 거요. 단단히 옷을 입고 가시오.”

아저씨는 이 말과 함께 밀무역으로 보이도록 보따  
리 몇 개를 챙겨두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꺼입

었다. 그리고 아저씨에게 주의 사항을 더 들었고 둘은 보따리를 맨 후 집을 나섰다.

찬 바람이 여전히 매섭게 부는 날이었다. 눈은 소복이 쌓였고 두 그림자는 눈에 네 개의 발자국을 남겼다. 아저씨가 말한 지점에 도착했지만 일본군은 나타나지 않았다.

“날이 추워 어딘가에 몸을 숨겼나 보오. 우리한테는 다행인 일이지. 얼른 서두르시오.”

난 온몸이 뜯겨져 나갈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최대한 빨리 걸음을 옮겼다. 언덕을 올라가자 다리는 더 깊숙이 빠졌다. 발목까지 오던 눈은 무릎 근처까지 올라오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짐승의 배고픈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그 소린 바람 소리와 섞여 비명처럼 들렸다. 그 소리에 소름이 돋는 듯했지만 그럼에도 걸음을 멈추진 않았다. 아저씨의 걸음이 박힌 눈구덩이에

나의 발을 계속해서 끼워 넣었다. 아저씨의 걸음이 박힌 눈구덩이는 그나마 따뜻하게 느껴졌다.

“오빠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까?”

난 눈구덩이의 따뜻함에 취했는지 아저씨에게 물었다. 아저씨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계속 걸으며 대답했다.

“같은 길ियो. 보여준 약도도 그때와 같은 것이고. 그땐 내 몸이 좋지 않아 같이 따라 나서주진 못했지만.”

그 대답을 듣자 아저씨의 걸음이 박힌 눈구덩이는 더 따뜻하다고 느껴졌다. 오빠가 걸은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을 내가 따라서 걷고 있다. 동시에 오빠에 대한 안타까움도 느껴졌다. 누구도 같이 밟아주지 못했다. 혼자서 차디찬 눈길을 밟아갔을 것이다. 이 추운 눈길을 자신의 다리로 하나하나 짓누르며 나아갔을 것이다.

난 따뜻한 곳에 누워 이런 길을 홀로 밟아나갔을 오빠를 원망하고 미워한 자신을 생각했다.

그 생각을 하다 난 아저씨의 등 뒤에 부딪쳤다. 아저씨의 발걸음만 밟아나가느라 멈춘 아저씨를 보지 못한 것이다.

“다 왔소. 이제 강이오. 여기서 건너가면 되오. 난 일본군이 순찰을 돌기 전에 돌아가야 하오.”

나는 다시 말없이 일어나 고개를 깊게 숙여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이건 가는 길에 요기라도 하라고 조금 챙겼소. 역시 맛은 장담하지 못하오.”

아저씨는 농담과 함께 도시락을 건넸다. 도시락은 그 추운 날에도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잘 먹겠습니다.”

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뒤를 돌던 아저씨를 붙잡고 부탁 하나를 남겼다.

“오빠와 같은 부탁을 해도 되겠습니까?”

난 편지 하나를 내밀었다. 아저씨가 준 편지 봉투였다. 나의 편지까지 같이 든 더 두툼해진 편지 봉투. 아저씨는 내 편지를 말없이 받아 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함께 고개를 숙인 뒤 등을 지고 각자의 길을 걸었다.

이제 휘영의 앞길은 더이상 앞 사람이 걸은 발자국 같은 것은 없었다. 그리고 이번엔 같이 강을 건널 사람도 더이상 없었다. 광주천을 같이 넘었던 금해도, 한강을 같이 넘었던 작은오빠도, 여기까지 같이 오던 아저씨도 없었다. 차갑게 얼어버린 강길에 휘영의 다리는 자꾸 자꾸 미끄러졌다. 멀리서 보는 이에게도 보일 정도로 휘영의 몸은 바들바들 떨렸다. 얼굴은 칼바람

에 새빨개졌다. 짧아진 머리카락은 모자 밖을 벗어나고 싶다고 비명을 지르듯 휘날렸다. 미끄러지길 여러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영의 다리는 다시금 휘영의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밟아갔다.

달빛도 집어삼켜진 그 축고 어두운 겨울밤. 겨울강. 그곳에 유일하게 휘영이라는 이름처럼 빛나는 것은 강을 건너는 이의 두 눈동자뿐이었다.

## 소설 완성에 도움을 주신 분들

국어과 도덕과 선생님께서

글의 전체적 열개와 표현, 주제를 검토해주셨습니다.

역사과 선생님께서

소설 속 역사적 현장이 실제 역사와 같이 드러나도록 노력해주셨습니다.

영어과 선생님께서 글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사 서평을 써주셨습니다.

오류중 교장 선생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오류중 행정 보조 선생님께서

사투리 번역 작업을 도와주셨습니다.

오류중 3학년 학생이

전면과 후면 표지 디자인을 그려주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소설 속 연표

	휘영의 나이	소설 속 사건	실제 역사
1919	7	3.1 만세 운동 안범석 실종	3.1 만세 운동
1920	8	휘영, 보통학교 입학	광주고등보통학교 신설
1921~ 1925	9~13	보통학교 재학	제 2차 조선교육령으로 보통학교 4년에서 6년으로 확대
1926	14	보통학교 졸업	
1927	15		광주보통여자고등학교 개교
1928	16	광주보통여자 고등학교 입학	
1929	17	11월 광주학생 항일운동	4월 전남청년연맹 학생지도부 신설 11월 광주학생항일운동 11월 장석천(전남청년연맹, 신간회 광주지부)이 전국 확대 제안
1930	18	휘영 학교를 그만두고 만주로	3월 광주학생항일운동 종료

## 교사 서평

소설의 힘은 참 대단합니다. 처음에는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정신이 없지만, 이내 주인공의 그림자가 되어 그의 말, 생각, 느낌에 온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시대,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상상의 나래가 펼쳐집니다. 마치 그 시대, 그 장소에 살았던 것처럼요. 이 소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100년 전 과거가 배경임에도, 주인공 휘영의 그림자가 되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녀가 만세 운동에 휩쓸려 갔듯, 우리 모두 그녀의 여정에 자연스럽게 휩쓸리게 되지요.

금혜는 만세 운동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휘영에게 뭣하러 공부를 하는지 톡 쏘아붙이듯 물어봅니다. 이 날이 선 질문은 휘영의 마음을 쿡쿡 찌르며 그녀로 하여금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끊임 없이 돌아보게끔 합니다. 답을 찾기 위한 휘영의 노력을 따라가며 독자 역시 자연스럽게 자문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마 많은 독자들이 이 질문에 휘영처럼 막막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하물며 어른이 된 선생님 역시 아직 확신을 갖고 답할 수가 없군요.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을 함께해야 하는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이 조선인인지, 일본인인지, 아님 조센징인지 혼란스러워 하는 휘영의 눈빛은 굵은 날씨의 불꽃처럼 흔들립니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 부끄러워하지만, 어찌보면 십대에게 흔들리는 눈빛이란 지극히 당연합니다. 눈빛이 흔들리는 만큼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찾아가는 데 열중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어찌면 '흔들리는 눈빛'이란 '확신의 찬 눈빛'이 되기 위한 번데기의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흔들리는 눈빛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 경계해야 하는 눈빛은 의지를 잃어버린 텅 빈 눈빛이거든요.

소설은 휘영이 자신과 비슷한 고민과 큰오빠 범석의 길을 따라 두만강을 건너며 끝이 납니다. 과연 휘영은 큰오빠 범석과 재회했을까요? 그녀 역시 범석처럼 독립운동의 길을 걷게 될까요? 휘영의 미래는 독자의 몫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휘영이 큰오빠와 만나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류중 영어교사

# 회영

초판 1쇄 발행 2024년 8월

지 은 이 교사 문재영

도움준 분 교장 강00

교사 장00

교사 최00

교사 김00

교사 임00

교사 정00

교사 민00

디 자 인 학생 최00

펴낸 곳 오류중학교

\* 이 책은 오류중학교 학생독립운동기념일 계기 수업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책의 복제는 저작권자 혹은 오류중학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2024학년도

## 학생 독립 운동

## 기념일

## 제기수업 소설

일제 강점기, 혼란한 시대, 광주에 사는 휘영은 3.1 운동 때 큰오빠를 잃는다. 큰오빠를 잃은 상처가 극복되지 않은 가족들, 일제의 탄압에 저항하는 친구들, 일본에 굴복해 비겁하게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고 있다. 이리 흔들리며 휘영은 자신이 공부하고 살아가는 이유를 찾지 못한다. 휘영은 이 혼란스러운 시기와 사람들 속에서 삶과 배움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

### 혼란스러운 일제강점기에서 자기 삶을 찾고 싶은 10대의 이야기

나와 상관 없을 것 같은 과거의 이야기에서 나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작품 속 휘영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이 보인다면, 100년 전의 광주는 지나가버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기억하는 지금, 역기의 역사가 되었을 겁니다. 각자의 기억 속 휘영과 대화하며, 치열하게 흔들려보길.

-임00(오류중, 역사 교사)

작가의 섬세하고 반짝이는 목소리로 현재의 모든 휘영이들에게 묻는다. '우리는 왜 배워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불안과 고민에 휩싸여 어두운 길 위를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빛나는 달을 쳐다보며 이 이야기 속 휘영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장00(오류중, 국어 교사)

인간의 삶에 부여된 정답은 없기에 우리는 불안과 절망을 겪습니다. 그 고통은 이 세상에 내던져졌지만 주체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 운명을 애써 피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순간마다 자유롭게 선택을 내리고 그것에 책임을 지며 '나만의 길'을 만들어 나가죠. 휘영은 어떤가요. 흔들리다가 빛나고, 다시 흔들리는 휘영으로부터 우리는 주체적 실존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 비친 나의 눈빛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김00(오류중, 도덕 교사)

